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6



VOL. 216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8

이모저모한인사회.....10

KOICA, 2015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설명회

충북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제9회 한-인니상생 협력 포럼

JAKARTA MUSIC COMPETITION

해군 문무대왕함, 자카르타 입항

한인회, 롯데쇼핑에비뉴와의 간담

글로벌CEO과정 모집 안내

KOTRA, 공작기계기술인력육성

문화예술협력파트너쉽

인니태권도협회와의 간담

인치혁 개인전



비 오는 하교길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한국에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4일 치뤄졌습니다.
1995년에 시작하여 6회를 맞이하면서 지방선거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국가는 이미 복잡하고 산발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국가끼리는 지역적, 이념적 갈등요소와 국민정서를 살피느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단위의 다양한 교류와 국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WINDOW OF K-ART전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자우/JAMU)
아시안드림컵2014 인도네시아개막	<백진협>.....47
땅그랑 반트한인회 소식	Jalan-Jalan Jakarta
행복 충전 프로젝트	(반공박물관) <사공경>.....50
풍경과 사람	신성철 칼럼.....56
JIKS 소식	내 마음의 들 / 이산가족
JIS소식	<시:신영덕/그림:이태복>.....59
5월 월간 경제 브리핑.....30	법률해설/ 회사청산
기업탐방(우리은행 인도네시아)	<이승민>.....60
편집부.....34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생활속의 심리학) 설득과 태도변화	<허영순>.....64
<이윤형>.....38	화 도 소66
27회,28회 열린강좌	생활정보
<한지혜>.....40	
6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4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임종한, 황윤용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KOICA, 주인니대사관과 "2015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과 주인니한국대사관은 5월 8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주인니한국대사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는 박영식 공사, 차용기 서기관,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과 LG 전자, 삼성 전자, 미원, 코런도 등 KOICA와 협력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및 자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KOICA는 금번 설명회에서 기업협력프로그램(구 글로벌CSR프로그램)의 '2015년 추진 계획'과 '사업지원 세부절차' 및 '인도네시아 사무소 향후 지원계획'을 안내하였다. 또한 참여한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과 KOICA의 기업협력프로그램의 융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병관 소장은 "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할 때,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전략과 부합하는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지속적,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사업의 발굴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며 KOICA의 협력 하에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 또는 자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구체화 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하나, 사

업의 기획, 운영, 인력 등에 한계가 있어 망설이는 중소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제라도 KOICA 사무소로 연락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박영식 공사는 "최근 발간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CSR 활동 가이드라인 및 모범 사례집'이 기업의 사업 추진에 있어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향후, 동 책자의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하여 인니어로 번역하여 재발간 하는 등, 인니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참여 기업들은 KOICA의 기업협력프로그램이 조금 더 현지 사정에 부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KOICA가 관련 설명회를 현지인 및 한국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주 개최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해줌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여 인도네시아 전반에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하였다.

향후, KOICA는 기업과 협력 가능한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 NGO 정보 공유, 기업 사업담당자의 개발 협력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기업역량강화교육' 실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모델 지원 및 다년도 사업 신규 도입을 통한 지원범위 및 기간 확대 등 폭넓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KOICA 인니사무소는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며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인도네시아 총북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21일,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주관하여 자카르타 Aryaduta 호텔 메잔느볼룸에서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 한인회(회장 신기업), 옥타월드(회장 김우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총북우수상품 전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북우수상품전은 호텔의 특별전시실에 참가업체 부스 30개를 설치하고 인도네시아의 유티라이어 200개사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충청북도 참가기업은 총 30개사로 건축자재 6개사, 식품 9개사, 화장품 4개사, 소비재 11개사로 구성되어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총북우수상품전 대표단장인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은 "인도네시아 총북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행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대폭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전시상담회장에서 당장 가지적인 계약이나 상담이 없더라도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시장이다.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한-인도네

시아 FTA가 체결될 예정이어서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억5200만 달러어치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충북도는 첨단기술과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 양국 기업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 인도네시아에 전시 상담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인도네시아 총북우수상품전은 2007년부터 충청북도가 시장성이 높은 전 세계 유망시장을 선정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마케팅사업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중국 칭다오, 중국 항저우, 홍콩 등에 이어 8회째 개최하고 있다.





제9회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

30일(금), 코트라(자카르타 무역관장 송유황)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 (GKBI 빌딩 1209호)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예정기업 및 진출기업 등 7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9회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 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을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Mr. Yuliot (Director of Investment Deregulation BKPM)의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자유지 정책과 Mr. Hedy (Head of Sub-Directorate BKPM)의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Q&A는 한국어와 인니어 통역이 제공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2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24일 부터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39 Tahun 2014' 가 공식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2010년 5월 25일 '대통령령 NO.36 Tahun 2010' 이후 4년 만에 발표된 리스트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2007, 2010년 네거티브리스트는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반드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지역 지방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동 개정판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진출 시에는 개정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은 2010년에 이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 광고 분야 등 아세안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허용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이행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개선되었다. 일부 산업과 세부업종에서는 투자허용, 완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한-인니 상생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매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강연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Jakarta Music Competition

연주 및 시상식



5월17일 오후 6시, 제인니한인음악협회(회장 김순재)가 주최한 제14회 Jakarta Music Competition 연주 및 시상식이 JIKS 나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 청소년들이 각자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장차 음악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준급 연주 실력을 뽐냈다. 또한 제법 의젓한 모습의 고등부문 수상자들은 프로 못지않은 기량과 무대매너를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부 각 부분별 수상자들의 음악회가 펼쳐진 후 시상식이 진행됐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는 대사상에 배서진(JIS 11)양, 한인 회장상 강민아(AIS 6)양 외에 23명의 수상자들이 트로피와 상장 및 상품을 수여받았다.

김순재 음악협회 회장은 “음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주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완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며 “때 묻지 않은 풋풋한 연주를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되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특별히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 꿈나무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삶의 소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한인 회장상을 받은 강민아양은 “대회를 위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면서 “노력한 결과를 얻어 정말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성악부 1등을 차지한 최연소 수상자 박혜원(BIS 1)양은 “상을 받아 뿌듯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며 기뻐했다.

한인회 신기엽회장은 “음악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펼쳐주었다” 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긍지를 음악을 통해 높여주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 '한인사' 발간에 관한 협조 요청 >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한인사' 발간을 위해 지난 3월 27일 한인회장을 발행인으로 하는 '(가칭) 한인사 편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및 한인사회 각 기관, 단체, 협의회 등 구성원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대상

- 가. 한인회/편찬위원회로부터 서면/이메일/구두상으로 협조요청을 통보 받은 기업, 기관, 단체, 협의회, 개인.
- 나. 협조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한인사에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이나 관련 단체 모두. (☞ 채택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자에 그 출처를 명기할 것임)

2. 제출자료

- 가. 연혁
- 나. 인적사항: 집행부 및 주요 구성원
- 다. 사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
- 라. 관련 사진
- 마. 기타 주요 행사나 사건 관련 자료

3. 제출기한 2014년 6월 30일

4. 제출방법 ▶ 편찬위원회 이메일 주소: bukupcw@gmail.com
▷ 참조: 편집장/이상기

5. 편찬위원 분담업무

- ▶ 발행인/신기업, 편찬위원장/김문환, 편집장/이상기, 사무국장/김재민, 간사/이경은
- ▶ 편집진 이상기, 박정자, 서미숙, 김길녀, 김소진(인쇄 코디)
- ▶ 집필진
 - ▷ 기업진출사 김문환, 이승민, 신성철
 - ▷ 단체,업종별 이상기, 사공경, 채인숙, 조연숙, 이태복, 신영덕, 양승윤
- ▶ 자문단 승은호, 김재유, 배상경, 정무용, 이현상, 김영만, 조용준, 송재선
- ▶ 감수(자료제공) 김현기(전 한국문화원장), 한국문화원
- ▶ 후원 재외동포재단,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업-

해군 문무대왕함, 자카르타 입항



<< 2008년 12월 자카르타 판중쁘리옥항에 입항한 대조영함. 지난 26일 입항한 문무대왕함은 대조영함과 동급(충무공이순신급)으로 대잠헬기(LYNX)와 고속단정(RIB) 각 1대,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팀 30명 등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구성된다.



한 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976)이 지난 26일 자카르타 판중쁘리옥항에 위용을 드러냈다.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 임무를 맡는 대한민국 해군의 청해부대(淸海部隊) 16진의 문무대왕함은 지난 16일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장도에 오른 지 11일만에 판중쁘리옥항에 입항, 현지 한인과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청해부대는 2009년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이다.

부대장 김정현 대령이 지휘하는 청해부대 16진의 문무대왕함(4400톤)에는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 경계대 등

장병 300여 명이 승함해 임무를 수행한다.

도착 첫날인 26일 저녁 현지 한인, 대사관직원,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 및 미국과 중국 해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합상 리셉션을 개최, 군사외교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어 27일에는 합정 공개를 통해 우리 해군의 첨단 장비를 소개했다.

문무대왕함은 대한민국 최초 전투함 과빙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청해부대 1진과 8진, 12진에 이어 네 번째 과빙임무를 맡아 동급 합정 중 최다 과빙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문무대왕함은 28일 판중쁘리옥항을 출항, 내달 중순경 아덴만에 도착한 뒤 올해 11월까지 과빙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공: 데일리 인도네시아)



한인회, 롯데쇼핑 에비뉴와의 간담

4일, 롯데쇼핑 에비뉴(법인장 서창석)는 삼원가든(롯데쇼핑에비뉴 5층)에서 개점 1주년 감사행사로 한인사회의견 수렴을 위해 한인회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해를 롯데홈쇼핑과 함께해 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협력사의 에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동반성장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고자 기획했다.

최 법인장은 “인사이동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서야 자리를 마련하였다” 며 “한인사회와 협조방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싶었다” 는 인사말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롯데쇼핑 에비뉴점은 쇼핑 특화거리로 조성되고 있는 ‘메가 쿠닝안(Mega Kuningan)’ 지역의 복합단지인 ‘씨푸트라 월드 자카르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롯데의 유통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에비뉴점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하여 쇼핑몰,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등 총 480여개의 브랜

드가, 롯데면세점은 업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시내면세점으로 화장품, 패션, 잡화 브랜드 등 총 17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또한 현지화에 주력하면서도 한국 백화점의 장점을 집목시키는 전략을 선보였다. 백화점과 쇼핑몰의 경계가 명확하면 백화점을 찾지 않는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두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고, 기존 인도네시아 쇼핑몰의 매장구성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 집중시켰다. 1000여석 이상의 편안한 공간과 상품권 등 고객의 서비스에 신경을 썼다.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 언론 매체를 통하여 롯데 에비뉴의 다양한 문화시설,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상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고객만족을 직접 체험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한인회가 고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글로벌 CEO 1기 모집과정 안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CEO가 갖추어야 할 지식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고의 글로벌 CEO 과정을 보유한 외대와 함께 코참이 글로벌 CEO 1기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신청기간 : 2014. 06. 02(월) ~ 06. 15(일)
- ◎ 프로그램 기간 : 2014. 07. 10(목) ~ 08. 30(토)
매주 목요일 3시간(18:00 ~ 21:00), 매주 토요일 6시간
(12:00 ~ 18:00 또는 13:00 ~ 19:00)
- ◎ 졸업식 외대총장 참석 졸업장 수여
- ◎ 수강료 : 약 \$3,000 (추후공지)
- ◎ 프로그램

	강의일시 (2014년)		담당교수
1	07. 10(목), 12(토)		권 석 균, 조직/인사관리
	강의명	국문	조직과 인사관리
		영문	Organization and People Management
2	07. 17(목), 19(토)		채 명 수, 마케팅
	강의명	국문	마케팅 관리
		영문	Marketing
3	08. 07(목), 9(토)		유 태 영, 경영전략
	강의명	국문	전략경영
		영문	Strategic Management
4	08. 14(목), 16(토)		조 장 연, 회계학
	강의명	국문	회계와 가치경영
		영문	Accounting and Value Management
5	08. 21(목), 23(토)		박 진 우, 재무관리
	강의명	국문	재무관리
		영문	Financial Management
6	08. 28(목), 30(토, 오전)		고 영 훈, 인도네시아 문화
	강의명	국문	인니문화의 원형
		영문	Origins of Indonesian Culture
7	08. 30(토, 오후), 졸업식(저녁)		권 석 균, 조직/인사관리
	강의명	국문	리더십과 변화경영
		영문	Leadership and Change Management

◎ 문의 : 김혜아 간사 021-5296-0663 / 0813-1064-9663

KOTRA-두산인프라코어, 인도네시아에서 공작기계 기술인력 육성

KOTRA는 12일(현지시간) 두산인프라코어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니 상생협력센터에서 공작기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니 공작기계 기술학교’를 열었다.

이날 기술학교 개교식에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교육생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재윤 공작기계BG장(부사장)은 “작년 2013년 한인니 수교 40주년으로 전략적으로 협력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인도네시아의 숙련된 노동자 시장은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글로벌 기업인 인프라코어는 전문성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숙련된 노동자를 배양하기 위해 양성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CSR사업을 통해 공동발전에 기여해 존경 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최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의 이와얀딕따 차관은 “한국정부의 성원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작년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소한 한·인니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니의 일촌일품 운동(One Village One Product)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동 센터에서 인니 근로자의 전문 기술 향상도 지원하게 되어 양국간의 협력이 더욱 진일

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협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코트라가 중소기업부에 많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기술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우수 산업인력으로 선발된 60명의 인도네시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공작기계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과 정밀 가공 등 고난도 공작기계 가공 실습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인도네시아 기술인력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됐다. 교육 개설 및 운영을 위해서 KOTRA와 두산인프라코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손을 잡았다. KOTRA는 사업을 총괄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는 사업을 후원하고 참가 대상을 모집했다.

기술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현지 창업 활동을 전개하거나, 인도네시아 제조업 발전의 역군으로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KOTRA 관계자는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숙련 기술인력으로도 활동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TRA와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작기계 기술학교’ 운영을 정례화하여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지속적 발전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송유황(왼쪽부터) 관장을 비롯한 두산인프라코어 이재윤 공작기계BG장(부사장), 중소기업부 이와얀딕따 차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박영식 공사, 프리신도 미트라우사하(PT. Frisindo Mitra Usaha-FUM) 폰소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교민 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

재외 교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2014년 재외 교민 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를 실시하오니 인도네시아지역 교민자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개요

시기 : 2014년 7월28일~8월1일 예정 4박5일간

장소 : 경남일원

대상 : 40여명(재외교민자녀 고등학생/대학생)

경비부담 : 참가학생(왕복항공료), 경상남도(체재비, 연수비)

신청서송부 : FAX +82 55 211 3239 / E-mail (kimjm43@korea.kr)

-대한민국 경상남도-

인니에 퍼지는 새마을 운동
Clean Indonesia Campaign

지난 11월 씨보다스 국립공원에서의 행사에 이어, 두 번째 "자연사랑" 5월15일, 휴일을 반납하고 모나스 공원 (TAMAN MONAS) 에 모인 청소부(?)들...

자카르타 주정부 공무원, 인니 고교생, 대학생, 자총 글로벌리더와 친구들, 한국대사관 총영사님과 자총 회원 및 친지...등, 총 190여명.

모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오전 9시 경부터 모나스 공원 주변의 쓰레기줍기 행사.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동포들의 참가를 기대...

이날 행사에 인니 언론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행사를 마친 자총 회원들, 군비로 대한민국대사관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염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KFF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KOREA FREEDOM FEDERATION INDONESIA BRANCH

자카르타 예술대학-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

5월중 첫사업, 도시재생, 복합문화단지 사례 연구 전문가 교류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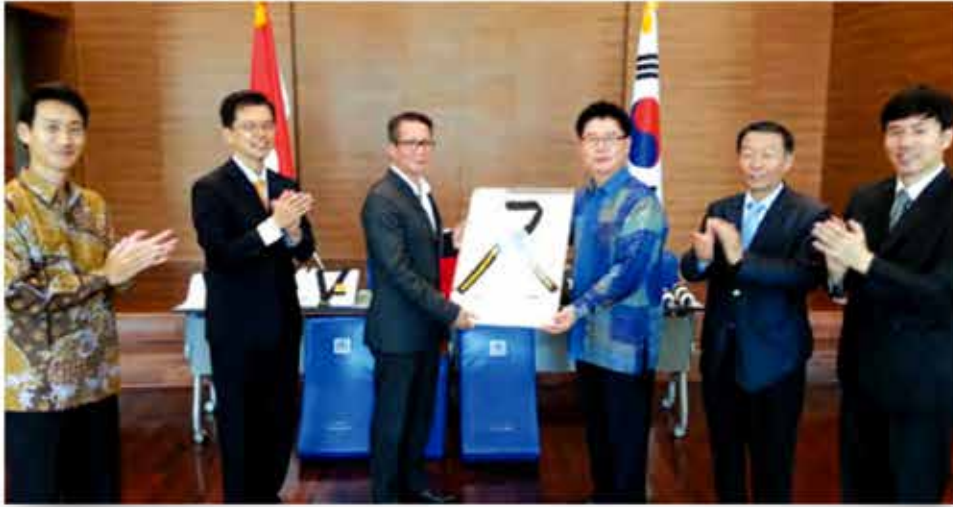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지난 5월 2일 인도네시아 최고의 예술교육 전문기관인 자카르타 예술대학(Institut Kesenian Jakarta, 총장 Wagiono Sunarto) 과 문화예술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자카르타 예술대학은 1968년 국립예술센터(Taman Ismail Marzuki)에 설립되었으며, 순수미술과 디자인, 영화와 드라마, 음악, 무용, 패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문화계를 이끄는 역량있는 예술인들을 배출한 최고의 예술교육 전문기관이다. 양측은 지난해 한-인니 도자기 전시회와 한-인니 영화산업 협력세미나를 통하여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문화예술 전문가 인적교류, 학술·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주요 문화행사 공동추진 등 폭넓은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MOU 체결행사에는 자카르타 예술대학 총장, 부총장 및 학과장, 부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한국과 맺는 MOU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측에서는 한인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한인문화예술총연합 김문환 회장 등이 참석하여 협력관계 구축을 축하하였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원과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4년 한·인니 국제교류: 글로벌 기획인력 육성>프로그램의 참가자로 동 대학의 CITRA DEWI 교수(시각미술)와 SUSI HARAHAP 교수(인테리어)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5월 중 한국에 방문하여 인천 차이나타운 및 인천 아트플랫폼과 파주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재생과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예술대학 Auditorium
참석자(사진) IKJ Wagiono Sunarto 총장, Melina Surya Dewi 부총장, 각 학과장 등
한국문화원 김석기원장, 당종래 부원장, 한인문예총 김문환회장 등



대사관 인니 태권도 협회 초청 간담회 국기원 태권도 용품 전달식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5.20(화), 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 Dick Richard 사무총장을 대사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기원에서 보내온 태권도 용품을 전달하였다.
(도복, 매트, 훈련장비 등 국기원 제공 태권도 용품)

간담회를 통하여 양측은 인도네시아 태권도 보급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범 파견, 시범단 활동, 주요 대회 후원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제7회 인치혁 개인전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보여 준 서양화가 인치혁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자카르타 동부 Bekasi Jababeka에 소재한 Java Palace Hotel에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되었다.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미술 협회장으로 한국 현대 미술의 소개와 많은 연합 전시회 등을 통해 동포 사회와 현지 미술계와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꾀했던 작가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숫자라는 기호

와 특별한 안료 등을 통해 화폭에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너무나 익숙하고 흔하여 무심히 지나쳤던 숫자에 속한 많은 의미들을 고찰하며 인생에 대한 귀한 반추를 함으로 앞으로 더 나이갈 시간에 대한 귀한 의미를 더욱 부여하고 있는 이 전시는 대형 작품 위주로 전시되며 그간 소외된 동부 자카르타 지역의 문화 갈등을 해소시키리라 본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여는 창, Window of K-Art展



3일,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신관1층 전시관에서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 한인회(회장 신기엽), 현지 언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역량 있는 18인의 중견 작가의 작품 36점을 초대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여는 창, Window of K-Art展’의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를 비롯해 서양화, 연필화, 조각, 사진, 영상, 자기 등 각자의 분명한 특색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재료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김석기 원장은 “문화교류는 그 나라를 알리고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한류의 중심에 있는 K-POP이 음악으로 세계에서 각광을 받듯이 미술로도 우리 문화의 또 한 면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Window of K-Art展’을 열게 되었다. K-pop과 K-Drama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이번 K-Art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정광식 작가는 “예술은 움직일 때 그 가치가 꽃을 피운다”며 “인도네시아 작가의 그림 또한 한국으로 들어와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신관 1층 전시홀에서 진행됐으며 한국문화원과 한국대사관을 비롯하여 20여 년간 동남아 시장에 주력해온 한국 심어화랑과 수라바야 국제문화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이 후원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미술이라는 창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그 창가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카카오톡 아시안드림컵 2014' 자선경기가 2일 JS파운데이션(이사장 박지성) 주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렸다. 경기에 출전한 '박지성과 친구들' 팀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축구 올스타 팀과의 경기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축구의 전설 차범근,이탈리아 잠브로타, 세리에A AC밀란의 엘샤라위 참가

2일 오후 8시 부터 JS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아시안 드림컵 2014 인도네시아' (이하 박지성 자선축구) 경기가 진행됐다. 아시아 드림컵은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박지성이 설립한 재단인 JS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하는 동남아시아 축구환경개선 및 청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는 자선축구대회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경기는 조태영 신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를 포함해 신기업 한인회장, 김석기 문화원장, 대사관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성 팀과 인도네시아 올스타 팀의 대결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박지성 자선 축구

대회에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과 이탈리아 레전드 잠브로타, 세리에A AC밀란의 유망주 엘샤라위까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후반전에는 차범근 감독, 런닝맨 멤버인 유재석, 김종국도 참가했다. 박지성 자선경기 중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지성 자선경기 중계, 잘 보고 있다", "박지성 자선경기 중계, 완전 대박", "박지성 자선경기 중계, 이광수 선발이네", "박지성 자선경기 중계, 정대세 첫 골 넣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편 잠브로타 외에도 스테판 엘샤라위, 인도네시아 축구영웅 밤방 파몽카스, 정대세, 남태희, 이정수, 석현준, 김상식 등이 참여한다. 또 지난해 박지성 자선축구에서 활약을 보여줬던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멤버들도 만날 수 있다.





땅그랑 반톤 한인회 6월 소식



진정한 환인 속에서 하나되는 땅그랑 반톤 한인회!!

매일 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하시나요?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한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정의날 행사



지난달 8일 태능갈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0년 땅그랑 반톤 한인회 창립이후 매년 계속되는 행사로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을 함께하고자 조촐하게 점心和 다과로 모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 땅그랑문화원 탐방

=한지공예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한지공예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원순옥선생님을 모시고 약 15명의 수강생들이 호박등, 지통, 뒤주 및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지의 아름다움에 푹~빠져 보세요.^^

♣ 장학금 조성 및 운영기금 마련 바자회

오는 10월 25일(잠정)에 땅그랑 반톤 한인회 장학금 조성 및 운영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자회 물품 판매 원하시는 분은 땅그랑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광고, 공지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임원보고회

**일 시 :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Imperial Club Golf, Tee-Off 12시
**저녁식사 : 태능갈비 오후 6시

상반기 임원보고회는 골프를 예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결과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땅그랑 반톤 한인회 사무실:
021.9179.6313



땅그랑 씨트라지역 어린이날 행사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땅그랑 씨트라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가족들 100여명이 모여 어린이날행사를 가졌다.

지난 4년간 다문화 가정을 돌보아 온 '땅그랑 코리아' 전덕천 전회장님의 주관하에 땅그랑 반트한인회와 땅그랑 축구회등의 협찬으로 가진 이번 행사는 이제까지 매월 쌀을 비롯한 생필품을 지원해 오다가 이번 어린이 날을 맞이 하여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고 우리민족의 민속놀이 줄다리기, 제기차기, 사물놀이 그리고 난타등 장기자랑으로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땅그랑 코리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기가 되기를 바랐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급속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확산과 다문화가정의 생성 속에서 찢줄만 한국인이자 언어와 문화도 전수되지 못하고 정체성도 찾지 못하고 버려진 우리의 찢줄이 있다.

무책임과 무관심속에 소외되어 가는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에 땅그랑 코리안 모임이 가진 이번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가까운 이웃으로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에 감사와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저들이 건강히 자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어 떳떳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튼튼한 역군이 되길 기대해 본다.

땅그랑 이 태복기자(taeboklee@yahoo.com)



행복충전 프로젝트,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인도네시아 밀알한글학교에서 초·중등부 학생들이 직접 케익을 만들며 실습을 통한 다양한 교육 및 언어 학습 기회를 가졌다.

타 학교와는 달리 단순하고 무료한 반복적인 언어 학습이 아닌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밀알한글학교(교장 박현순)가 지난 5월 31일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뚜레쥬르 알람수트라점에서 개최했다.

초·중등부 학생 14명이 함께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케이크를 만들고 함께 얘기하며 즐겁고 값진 시간을 가졌다.

박현순 밀알한글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어휘의 사용경험을 체험하게 해주고 제작과정에서의 방법의 이해, 물질의 변화의 이해, 미적 감각, 창의성의 증진을 도우며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을 통한 자연스러운 어휘습득과 더불어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활동들이 향후 한글을 배우는 원동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밀알한글학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지회가 한글전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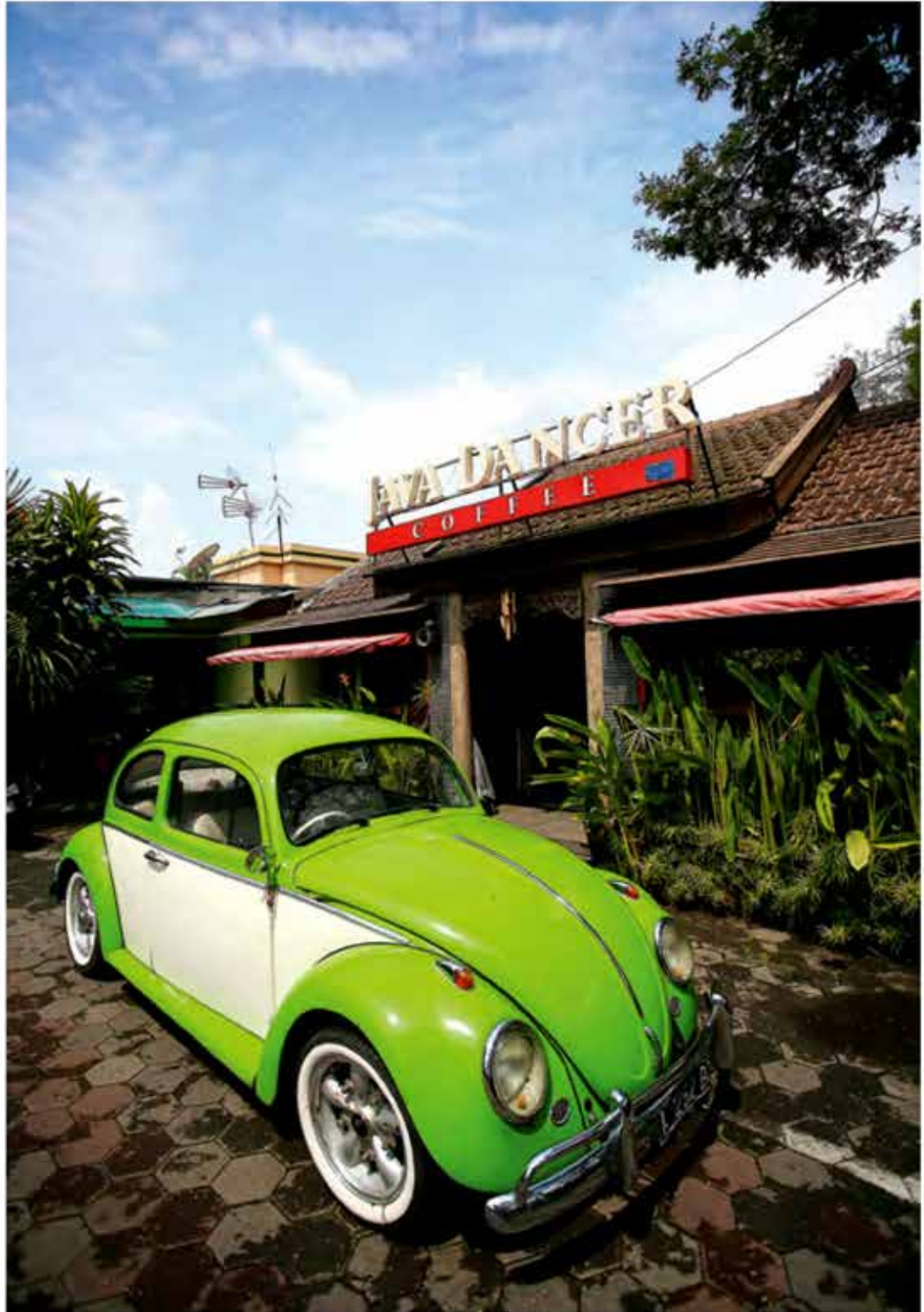
말 한글학교로, 지난 2006년 땅그랑에 이어 그 해 12월 씨가랑과 자카르타에 차례로 개교했다. 특히 한글밀알학교는 한국 여성가족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자녀들의 모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밀알한글학교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은 CJ 인도네시아(총괄대표:손용)의 뚜레쥬르에서 후원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이 어린이들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밀알한글학교는 트렌드에 발맞춰 언어 학습은 물론 문화학습도 함께 병행하여 최고의 한글학교를 지향할 계획이다.

한편 코원은 오는 6월 21일 한국문화원에서 한인 동포들을 위한 행복충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부,2부 두 차례로 나뉘지는 행복충전 프로젝트에서 1부는 시간, 이슬람 인니문화를, 2부는 내 얼굴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배울 수 있다.





Malang "Java coffee"

깊은 커피향에 끌려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었을때
문득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오래된 자동차를 바라보며
'낡은것이 이리도 빛을 발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 축구 동아리팀이 2014년 COCA-COLA FOOTBALL LEAGUE U-16 경기에서 여러 경쟁팀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자카르타 소재 학교 U-8세부터 U-18세까지 47개 학교 4,500 여명의 선수가 각 리그별 리그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이다.



JIKS 축구부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유망주보다는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으로 구성된 순수 동아리팀으로 주 1회 방과 후 연습을 했으며, 김배진 감독 지도 아래 2012년 준우승, 2014년 우승과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한빛사랑" 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빛" 의 뜻은
대한민국의 빛,
한국의 큰(사랑의) 빛,
한국/인도네시아가 하나된 빛... 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암이 걸린 어린이 환자로써,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양눈의 실명은 물론 일반 암환자와 같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태이었어요.

성명 : M. Fahri Aditia (남, 5세)
병명 : Retinoblastoma (눈의 암)

치료비 마련이 어렵다는 소식에... 아이의 생명도 살리고, 나머지 오른쪽 눈은 계속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지요.

치료부위 : 왼쪽 눈
치료방법 : 왼쪽 눈 제거 후, 인조(가짜) 눈 삽입
치료기관 : Rumahsakit Cipto (찢뜨 국립병원)
치료완료 : 2014년 5월 3일

비위생적이고 질병 많은 인도네시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비가 많이 오니 홍수지역도 더 많아졌는데,
아이들은 그 홍탕물 속에서 신이 난다고 수영을 하니...

이 땅에서 "한빛사랑" 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수술전)



(수술후) 예뻐졌어요 !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KOREA FREEDOM FEDERATION INDONESIA BRANCH

PROM

(학생기자 김혜경)



4월 26일 JIS는 다르마왕사 호텔 (The Dharmawangsa Hotel) 에서 전통적인 미국 고교 졸업파티 프롬 (Prom)을 열었다. 프롬은 곧 졸업할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자리이지만 11학년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다. 9, 10 학년 학생들과 타학교 학생들도 초대를 받아 참석하기도 한다. 지난 몇년간 학교 체육관에서 프롬이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위하여 교외에서 진행 되었다.



프롬은 '무도회에 행진'이라는 뜻의 Promenade의 약자로, 무도회와 비슷하다. 이 순간은 미국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파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프롬 일정 몇달 전부터 프롬을 준비한다. 같이 파티에 참석할 짝 (date)도 구하고, 남학생들은 턱시도를, 여학생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준비한다. 프롬은 저녁 8시에 시작하였지만 많은 학생들 (김선영 (11) 과 박혜린 (11)을 비롯)이 아침 일찍 와서 홀을 꾸며주는 봉사도 하였다.



매년 프롬은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다. 작년의 "City of Masks (가면의 도시)"를 이어 올해는 "The Golden 20's (금빛 20년대)"의 주제로 계획되었다. 이 주제에 따라 무도회장은 금색, 흰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졌으며 학생들은 20년대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영화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를 떠올려 비슷한 의상을 입고 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호텔에 입장하자마자 같이온 짝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는 무도회장으로 들어갔다. 무도회장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앞 칸에는 무대와 학생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뒷 칸에는 학생들이 쉬고 간식을 먹을 수 있게 많은 테이블들과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으며 당구대와 같은 시설도 준비되어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연주를 하러 특별히 프롬에 참석한 이유진 (Bonny Lee) (11) 학생도 "재밌게 연주하다 가서 기쁘다. 내년의 프롬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많은 JIS의 한국학생들에게 이러한 대표적인 미국 학교들의 행사에 참여 하는 것은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프롬은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JIS는 이번 프롬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로 자리잡을 것이다.



2014년 5월 월간 경제 브리핑

인도네시아, 수입 휴대폰에 사치세 20% 전면 부과기로

산업부 "10월 유도요노 정부 끝나기 전에 규정 완료될 것"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증하는 통신기기 수입 억제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산 휴대폰에 20%의 사치세(PPnBM,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 인도뉴스닷컴이 지난달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히다얏 산업장관은 루트피 무역장관과 회의를 연 뒤 "정부는 국내 산업이 성장하려면 모든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히다얏 장관은 "예정대로 판매가 5백만 루피아 이상의 외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20%의 사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5백만 루피아 이하의 기기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히 사실상 전면 적용을 밝힌 셈이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휴대폰 수입이 절반 정도 감소해 18억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고 4조1000억 루피아(3억6000만 달러)의 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내 휴대폰 산업 발전을 위해 자국산 휴대폰 메이커 4개사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로컬 휴대폰 제조업체는 액시오(Axioo)의 테라 인도누사(PT Tera Indonusa), 티폰(Tiphone)의 티폰 모바일 인도네시아(PT Tiphone Mobile Indonesia), 폴리트론(Polytron)의 하르토노 이스타나 테크놀로지(PT Hartono Istana Teknologi), 에버코스(Evercoss)의 아리스 인도 글로벌(PT Aries Indo Global)이다.

히다얏 장관은 "오는 10월 20일이면, 유도요노 정부가 끝난다. 우리는 현 정부가 끝나기 이전에 '수입 휴대폰 20%사치세 부과' 규정을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정부, 외국인 투자제한목록(DNI) 개정안 발표

<DNI List>

유통·냉장창고·에너지 일부 등 투자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출자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List)'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 를 지난달 23일 개정·공포했다.

BKPM 측은 투자 규제가 강화됐다는 의견에 대해 인도네시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투자규제 부문 설명에도 불구하고, 규정 해석이 불명확한 부문이 여전히 남아있어 각 기업들은 신규투자 안전별로 BKPM 측에 문의해 정확한 투자규제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KPM측은 원칙적으로 규정 개정 전에 기 승인을 얻은 투자안전은 적용 대상 외로 하는 경과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신청 시 新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투자안전은 개정 전 규제 범위 내에서 주주와 출자비율, 임지 변경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분야에 추가된 디스트리뷰터(유통사)에 대해 회사가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회사에 위탁생산한 제품을 대규모 상업 분야로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수출입업자의 출자비율은 지금까지 100%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판매할 시에는 디스트리뷰터를 경유하거나 지역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비율은 최대 33%로, 수입 판매 형태의 완전자회사 설립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ASEAN국가를 경유하는 출자를 새롭게 인정한, 광고와 포스터 등 영화 광고 관련 및 운수 일부에 관해서는 역내 서비스 협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외국계 기업의 자본이 들어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BKPM 홈페이지 (<http://www.bkpm.go.id/>) 내 상단 투자안내 메뉴-투자금지품목(DNI)에서 2014년도 투자금지규정 개정안 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재정적자 줄이자” ... 허리끈 졸라매는 인도네시아 정부

올해 예산 100조 루피아 긴축... 공공사업부 예산삭소율 27%로 최대
중앙은행 “루피아화 환율 달러당 16,000대로 추락해도 버틸 것”

유도요노 대통령은 20일 올해 정부예산 100조 루피어를 긴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2014년도 예산지출액을 삭감하여 재정적자 확대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예산 삭감 대상이 된 86개 기관 가운데 공공사업부의 예산삭감액은 22조 7,462억 루피어로 최대 규모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19일 예산축소에 관한 대통령령 ‘2014년 제4호’에 서명했다.

예산삭감액 달성을 위해 7일 이내에 보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공공사업부에는 2014년 예산보다 27% 줄어든 61조 4,020억 루피어로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12% 줄어든 75조 8,680억 루피어, 교통부에는 12% 감소한 30조 2,200억 루피어로 각각 10조 루피어 이상 삭감한다. 정부가 예산 긴축까지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다. 기존에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적자폭의 예산을 2.5%로 올렸다. 까뎀 재무장관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예산 긴축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예산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비용과 출장비 등을 절약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목표 재정적자 2.5% 이내로 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루피아화 환율이 달러 당 12,000대에 근접한 상태가 지속되는 등 시세가 회복되지 않았고, 연료 수입 비용이 부풀어 오르는 등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예산삭감액이 큰 10개 부처

순위	기관명	삭감액	2014년 예산	축소율
1	공공사업부	22,746	84,148	▲27%
2	국방부	10,509	86,377	▲12%
3	운수부	10,151	40,371	▲12%
4	국가경찰	5,780	44,976	▲13%
5	보건부	5,461	46,459	▲12%
6	농업부	4,423	15,471	▲29%
7	에너지광물부	4,400	16,263	▲27%
8	내무부	3,893	14,903	▲26%
9	재무부	3,053	18,712	▲16%
10	종교부	2,553	49,402	▲5%
86개 기관 합계		100,000	637,842	▲16%

출처 : 대통령령 ‘2014년 4호’

단위 : 십억 달러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eta Office Tower 10th Fl 1501A
J. Jend. Sudhar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20

찌까랑 드라이포트 이용 급증한다

<내륙항만>

하역작업 2.8일이면 완료...물.철도 접근성 높아

서부 자바주 찌까랑에 있는 내륙항만(드라이포트)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자가 늘고 있다.

2012년도 말 시점에서 찌까랑 드라이포트 이용 수출입업자는 7개사에 그쳤으나 지난해 80개사, 올해 4월 말에는 216개사로 크게 늘었다. 수도 자카르타의 탄중쁘리옥 항구보다도 하역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부동산개발회사 가와산 인더스트리 자바베카(PT. Kawasan Industri Jababeka)의 자회사로 내륙항만을 운영하는 찌까랑 인랜드 포트(PT Cikarang Inland Port)의 베니 전무는 "내륙항만에서 하역 서비스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2.8일" 이라고 설명했고 현지언론 드떡닷컴이 6일 전했다.

그는 "탄중쁘리옥 항구에서는 하역서비스가 6일 걸리며, 트럭 수송 시간도 추가되면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고 지적하며 공업단지에 가까운 내륙항만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현지 찌까랑 내륙항만의 연간취급능력은 약 50만 TEU로, 현재 가동률은 50%정도이다.

부지면적은 200헥타르로, 최대 250만 TEU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찌까랑 드라이포트는 뿌아사와 르바란 기간 탄중쁘리옥에서 넘어올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탄중쁘리옥항이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3개의 고속도로가 찌까랑 드라이포트와 연결되어 있다" 고 했다. 찌까랑 드라이포트는 수라바야행 열차로도 연결된다.

한편 국영항만 펠린도II(PT. PelindoII, 이하 IPC)는 탄중쁘리옥 항만이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항구 처리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新 탄중쁘리옥 항으로 불리는 칼리바루 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노동자 권리 외치는 '메이데이' 시위

발리 덴빠사르 발리주정부 청사 앞에서 30일 노동자들이 주 최저임금 인상 및 계약직 노동자 규정 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메이데이 행사가 열렸으며 노동단체들은 2015년 최저임금을 30%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군부의 인권탄압을 잊지말자

중앙자카르타 호텔인도네시아 로터리에서 21일 대학생들이 수하르토 '신질서' 독재 시절 군부의 인권탄압을 잊지 말자며 'melawan lupa(잊혀지는 것에 대항하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아딧야(Aditya)



사우다라은행 임직원 우리은행 방문 기념사진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최상학 은행장

한국 금융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다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지난 1992년 6월 18일 설립되어 올해로 23년째 현지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간 큰 우여곡절 없이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을 키워오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탄탄히 성장해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영업을 해 왔다 할 수 있다. 2013년말 기준으로 대출금 4억불, 예수금 3억불의 규모로 약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현재 자카르타에 본점을 두고 한국기업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땅그랑, 짜카랑, 짜부부르, 사당 지역 등에 7개의 출장소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영업망을 구축하였다.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전문지인 Infobank로부터 18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기업 책임경영(CSR) 대상” 에서 “KOTRA 사장 표창” 을 수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지 금융당국 및 현지 지역주민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니 정부와 우리은행사이에 신뢰를 확인하였다.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주요 CSR 활동

- “사랑의 전화” 운동 물품/장학금 후원
- 인도네시아 현지인 대상 “밥퍼” 활동 정기 참여
 - 임직원의 도시락 제조, 빈민가를 찾아 도시락 배부
 - 현금지원 및 사역장소 시설공사 지원
- “씨뜨라라야 무지개 공부방” 장학금(금융경제교실) 후원
 - 한인다문화가정 매월 학자금 지급
 - 한인다문화가정 공부방 금융경제 교육 실시
- 인니 현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후원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매학기 장학금 후원

우리은행은 글로벌 전략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통한 아시아 TOP 10” 이라는



KOTRA CSR 포럼 시상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미래 성장동력을 겸비한 인도네시아 금융리더” 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2012년부터 우리의 전략과 가장 잘 맞는 사우다라은행을 파트너 은행으로 선정하여 한국금융사상 최초로 현지 상장은행인 “사우다라은행” 지분 인수하였고 현재 합병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은행과 사우다라은행의 주요 합병 진행현황



Blood Donation Program 2013

2012년 06월 우리은행이 사우다라은행 지분 33% 인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인니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은행의 사우다라은행 인수 협조요청

2013년 12월 Bank Indonesia로부터 우리은행의 사우다라은행 인수 승인

2014년 01월 우리은행, 사우다라은행의 주식 33% 인수

2014년 04월 사우다라은행 정기주총에서 김동수 수석부행장 취임

2014년 ~ 인도네시아 우리은행과 사우다라은행 합병 진행 중



Woori Scholarship 2013



Charity Program 2013



2014년 6월3일 금융자산 투자 및 세무관련 세미나 (한국자산관리, 부동산, 세무분야 최고의 전문가 초빙)인도네시아 교민 대상 오찬 세미나 성황리 개최

합병 후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주요 금융 서비스 전략

- 인도네시아 현지화
 - 사우다라은행 既 보유 영업망/고객기반 및 현지인 고용 증대 및 우수 금융인력 육성을 통한 현지화 실현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에 금융서비스 제공
 -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제공
 - 우리은행의 기업금융(한국고객/달러자산)과 사우다라은행의 소매금융(현지고객/루피아 자산) 간의 결합으로 다양한 상품 제공 가능

-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
 - 우리은행의 지속적인 자본투자 확대 및 수익 재투자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업 발전에 기여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국내기업과 교포기업을 위주로 영업을 해왔지만, 향후, 현지 시장공략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삼아 한국의 선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접목시키고 인력, IT, 점포망 확대에 투자하는 등 기업금융에 강한 우리은행의 전통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인도네시아에서의 또 다른 출발! 대한민국 창조금융의 시작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SAUDARA BANK) 인수!

대통령 해외순방의 성과로 이루어진 한국 금융의 자부심이며 케거입니다
성원해 주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 제9회 동남아시아 한상대회, 자카르타에서 개최 >

제9회 동남아시아 한상대회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됩니다. 2014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승은호) 총회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네시아 한상들과 아시아총연 소속 13개국 15개 한인회 전·현직 한인회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7월 2일 저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7월3일에는 동남아시아 한상대회 회의가 열려, 아시아 한상과 인도네시아 한상 기업들간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코참 사무국 kocham0909@gmail.com
021-5296-0663

DYNAMIC
KOREA

동포안내문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 대표전화: (021) 2967-2555

○ 핸드폰: 0812-1918-1055

○ 이메일: nayhs@hotmail.com



[생활속의 심리학] 설득과 태도 변화 설득은 강요가 아니라 소통이다

마음에 드는 그녀... 나한테 도무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던데... 자꾸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까 망설이게 된다. 이리다 영영 기회를 잃을까 두렵다.

설득의 성공여부는 설득자, 설득 대상의 정서, 설득내용, 설득 방법 등에 달렸고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을 통해 설득대상의 태도변화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언어, 눈빛, 몸짓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의식하던 그렇지 않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상호작용들 중 상대방의 태도(특정한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 정서적 신념)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 시킬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설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업시간에 조별 발표 내용을 조율하

는 작은 일에서부터, 선거 유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설득 주체(설득자)로서 혹은 대상(피설득자)으로서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설득을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태도를 변화시킬까? 심리학자들은 설득에 의한 태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해 왔다. 심리학에서 설득과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들에 따르면 설득의 성공여부는 설득자, 설득 대상의 정서, 설득내용, 설득 방법 등에 달렸고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을 통해 설득대상의 태도변화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설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설득자

그다지 불품없어 보이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강사가 연단에 올라섰는데, 사회자가 "000선생님은 미국 00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00기업에서 일하였으며, 최근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사

람입니다” 하고 소개하면,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후광효과(Halo effects)를 설명하는 좋은 예다. 똑같은 말도 전문가가 하면 훨씬 더 귀에 와 닿는다.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호칭이 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일까? 앞서 언급하였듯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여야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똑똑한지, 나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소위 ‘~에 관한 전문가’ 라는 표제가 붙는다면 그가 말하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이 아닌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며, 전문적 지식을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똑같은 말도 전문가가 하면 훨씬 더 귀에 와 닿는다.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호칭이 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일까?

하지만 전문가의 말이 모두 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말이 설득력 있다. 다시 말해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기업의 후원을 받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 즉 전문가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해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립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얼마나 주는가가 그 전문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를 잘 아는 기업체나 정당들은 어떤 기관 부설인지 또는 어떤 기업에서 후원

을 하는지 굳이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연구소 이름을 작명하고 해당 연구소의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곤 한다. 또한 설득자의 전문성과 신뢰 뿐 아니라 설득자의 매력도 또한 크게 작용한다.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 좋은 인상, 단정한 옷차림과 같은 요인이 설득의 성공여부에 작용하는 것이다.

설득대상의 동기 및 정서

나한테 관심 없는 그녀... 가끔 작은 호의를 베풀자. ‘뭐... 사람은 나쁘지는 않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면 우선은 성공이다.

설득의 성공 여부는 설득하는 사람과 설득 당하는 사람 모두의 태도 및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설득 대상자가 설득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때로는 설득자가 옳은 말을 하고,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심한 경우에는 옳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기가 더 싫어진다. 이와 같은 정서의 영향은 설득 대상의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설득 대상자가 ‘내가 어찌하겠어? 내 주제에 이걸 할 수 있겠어?’ 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설득에 의한 태도 변화의 가능성은 낮다. 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나 웬지 잘 될 것 같은 예감을 갖는다면 이러한 느낌이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설득대상의 정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설득의 효과도 달라지는데 Petty와 Cacioppo(1986)에 따르면 설득대상자가 내용에 관해 알고자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면 설득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와는 반대로 설득 대상자가 내용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설득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주의를 낮게 기울이고, 매력, 정서, 전문성 등에 의존하게 된다.

나한테 관심 없는 그녀.. 가끔 작은 호의를 베풀자. '뭐...사람은 나쁘지는 않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면 우선은 성공이다.

설득내용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이미 특정 사안에 대해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나 객관적인 사실로도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인 설득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럴테면 신문이나 방송이 특정한 사실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확고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보도 내용이 반대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각하기 쉽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부모님이나 자식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집안의 분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

설득을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단 태도가 변화되어야 설득과 이를 통한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 (이전 케이스트 '호감의 유지와 비호감의 개선' 을 참조하시라).



설득 방법

설득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서도 설득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 '아프리카 오지의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

B: 애잔한 음악과 함께, 굶주림에 지쳐가는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을 TV화면으로 마주하는 것

설득을 위해서는 무작정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태도변화는 어느 쪽에서 더 쉽게 일어날까? A보다는 B의 경우가 나도 모르게 070-XXX-0000버튼을 누르게 되거나 평소 막연히 생각만 해왔던 후원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B의 경우 시각과 청각을 통해 그들의 힘든 모습을 확인하고, 사연을 통해 공감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한 사람들에게 천 원짜리 복권을 나눠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부는 그냥 무작위로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번호를 고르도록 하자. 나중에 그 복권을 되팔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에 되팔겠는가? Langer (1975)에 의하면 내가 번호를 고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즉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 선택을 한 것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을 위해서는 무작정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설득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주장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면 심리적 반발이 생겨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 더욱 반대할 수 있다.

행동의 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

일반적으로 태도가 변화해야 설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행동에 의해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자신의 행동에 설득 되는 것이다. 작은 요

청으로 시작해 이를 들어주면 점점 요구의 수준을 올리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foot in the door effect)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작은 돈을 빌린 후 이것을 갚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큰 돈을 빌려서 도망가는 사기꾼의 예는 이를 악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만 나한테 무관심한 그녀에게 무작정 들이밀진 말자. 우선 대수롭지 않은 작은 부탁을 해보자. 그녀가 그것을 들어준다면 당신의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의 이유를 찾기도 한다. 만일 이때 행동과 태도 사이에 불일치를 느끼게 되면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가령 작은 보상을 받고 지루한 실험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돈 때문이 아니라 실험이 재미있어서, 혹은 실험자를 잘 도와주고 싶은 선의로 실험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만 나한테 무관심한 그녀에게 무작정 들이밀진 말자.. 우선 대수롭지 않은 작은 부탁을 해보자. 그녀가 그것을 들어준다면 당신의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설득은 소통의 과정

설득은 상대방의 의견을 뒤로하고, 내 의견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소통해나가는 과정이다. 내 생각 내 말만이 맞고,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고수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살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북극에서 냉장고도 팔 수 있는 사람' 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아마도 냉장고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며, 냉장고가 필요한 혹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고 싶은 누군가를 잘 찾아내고, 작은 호의를 주고 받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사람이 아닐까?

글

이윤형/영남대 심리학과 교수





천연 한방 샴푸와 진드기퇴치/ 모기 퇴치 페브리즈 내 손으로 만들기

문화선진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제 샴푸, 비누 만들기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인식이 웰빙으로 바뀌어 가는 시점에서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재료에 탈모와 머릿결을 위한 한방제품을 추가하여 "천연 한방샴푸"와 인도네시아의 거주하시는 분들의 특징상 습하고 침대생활에 항상 존재하는 진드기 퇴치를 위한 "진드기 퇴치 페브리즈", 아이들의 피부를 모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기 퇴치 페브리즈"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27회 강좌로 열렸다. 5월 10일 오전 3시간 동안 강사 윤정혜씨의 열정적인 강의와 회원들의 성실한 태도는 대학 연구소를 연상하게 하였다. 회원들은 한방 샴푸의 성분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샴푸의 성분에 관하여 알아가고, 샴푸와 페브리지의 궁금증을 풀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법과 가정에서도 약간의 정성만 들어간다면 식구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

백만원짜리 영양크림과 자일리톨 천연치약 만들기

천연비누 강사 윤정혜씨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고가의 영양크림(나노, 나노보복스, 펩타이드)과 치아에 좋다는 자일리톨 천연치약(옥수수전분, 자일리톨, 녹차)을 강의하였다. 피부에 좋은 성분을

개개인의 피부에 맞게 수제로 만들 수 있는 화장품의 장점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였다. 브랜드 제품을 쓴다고 모든 이들의 피부의 장, 단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피부의 영양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환경에 적합한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으로써 어찌면 몇 십 년 이상을 화장을 해야 한다면 약간은 수고스럽더라도 본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길임을 5월 31일 2시간(9:30 - 12:00)이 넘게 역설하였다.

천연치약의 장점에 관하여 회원들과 많은 정보도 공유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천연성분인 옥수수전분으로 죽염을 사용함으로써 입안도 상쾌하게 해주고 입 냄새는 물론 녹차로 치아의 건강까지 보장하는 요술같은 치약 만들기에 신바람 난 회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공하였다.

바쁜 일상 때문에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손쉽고, 간단하지만,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내손으로 천연 제품을 만든다면 환경도 생각하고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강의 시간이었다.

(수강생 한지혜)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기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수를 수치로 계산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선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혈연관계로 만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비롯해 성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스승님과 친구 등등... 다양한 인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으며 사회 속 일원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돈독한 정을 쌓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으로 보답하며 삶을 이어간다. 아마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우리가 살아가며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는 언어 중에서 사랑만큼 질리지도 않으며 지루하지도 않은 유일한 언어가 또 있을까 싶다. 모든 예술의 바탕이 되고, 연예인과 가수들의 노랫말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샘솟는 에너지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를 이어주는 천륜의 사랑은 물론, 스승과 제자의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 연인과 부부사이에 나누는 충만한 애정,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비롯해 일상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등,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사랑의 범위는 넓고도 크며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이다. 모든 사랑은 그 빛깔과 의미는 다르지만 분명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존재이고 무한한 가치를 발산한다. 그렇기에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의 행복을 천국에 비유하고 사랑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은 지옥에

비유한다고 했나보다. 한 가지의 나뭇잎들 중에도 먼저 떨어지면 남은 잎들이 슬퍼하고, 동지를 틀고 사는 한 쌍의 새 중에도 한 마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새가 슬피 운다고 한다. 하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우리인간의 슬픔에야 어찌 비유할 수 있을 것인가...

세월호 침몰로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한 순간에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그 고통을 생각하자니 또 다시 가슴이 먹먹해 진다. 한번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간사이고 자연의 섭리라 할지라도 그 슬픔과 복받치는 서러움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죽음의 고통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진다 해도 죽음이 남기고간 사랑은 영원히 가슴에 남는 것 같다.

아프게 절규하는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그 외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많은 사람과 함께할 시간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나이를 먹고 세월의 허무를 느낄수록 하루해는 더 빨리 저물고 기쁨을 느끼는 순간도 짧게만 느껴진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꾸 닳아 소멸되고, 사라지고 상실되는 느낌, 특히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다가오는 그 느낌은 더욱 쓸쓸하다. 그렇기에 늘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며 살게 된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겠노라고...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자그마한 선물로 대신 표현해 보기도 한다. 사람이기에 서로에게 표현할수록 깊은 사랑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느낀다. 아! 언제나 내 가족이구나! 언제나 나와 가까운 벗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행복감을 만끽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되기에...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이처럼 신의 숨결이 담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때때로 번거롭게 생각되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하는 나만의 안일한 생각에서 탈피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오후로 접어드는 한적한 시간 속에 책상 옆에 큰 창을 통해 햇살이 더욱 환하게 비쳐들고 있다. 문



득 법정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귓전을 맴돈다.

먼저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스승과도 같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게 모두 스승이다. 조건 없는 사랑은 음악과도 같다.

모든 것은 움직인다. 많이 줄수록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누군가에게 무언가 주고 싶으면 살아있을 때 줘라.” 죽은 사람의 물건은 어찌면 거북하기도 해서 살아있을 때 나누는 물건과 그 마음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것 같다.

선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최선의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그 참된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본다. 법정스님께서 남기신 깊고도 넓은 가르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돈을 벌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가족들과 충분한 사랑을 나누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영혼의 행복은 더욱 중요하다. 함께 나누는 일이 얼마

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요즘의 현실 속에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 같다. 사랑을 듬뿍 나누자.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충분히 표현하고 기쁨을 누리보자. 많이 웃고 살 기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일상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삶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맑고도 귀한 인연을 통해 때론 부서질 듯 마음이 아프면서도 많은 사랑들을 몸소 깨우쳐 왔다. 그런 날들이 생각해 보면 고맙고 감사하다. 제대로 사랑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만 같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리라 마음을 다져본다. 내가 준 사랑만큼 돌려받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 말자.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기— 그리고 제대로 표현하기— 아무런 보답 없이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자부해본다.





자무(Jamu),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약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인도네시아 교민이시라면 'Kuku Bima(꾸꾸 비마)', 'Antangin(안트앙인)', 'Tolak Angin(톨락 앙인)', 'Telon(텔론)', 'Pasak Bumi(빠삭 부미)'와 같은 제품명들에 꽤 익숙하실 겁니다. 길거리의 가판이나 와룽, 작은 상점 등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저렴한 값에 살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자무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Jamu Gendong(자무 갠동)' 처럼 마시는 음료 형태의 자무를 등에 지고 다니며 파는 상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신적이었을 겁니다.

자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두고 찾아보면 오랜 역사의 깊이와 다양한 처방의 넓이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오늘날 자무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가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같은 동남아 국가와 일본에서는 자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무는 영어로 'Herb', 우리 말로는 '약초'라는 의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생하는 전통 약용식물을 총칭하며 수많은 식물을 포함합니다. 수천 년 동안의 사용 경험을 통하여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처방하는 방법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무의 유래

자무(Djambu)라는 개념은 원래 자바족 고유의 문화이며 언어입니다. 주로 식물로부터 유래한 전통의약(Traditional medicine)을 지칭하는 말로 뿌리, 줄기, 잎, 열매 등 여러 부위를 자무의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이나 섬에도 각각 내려오는 전통의약이 있었지만 명칭이 없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자무는 자바족의 언어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의약을 대표하는 언어로 확장, 정착되었으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무는 비록 인도의 아유르베다(Ayurveda)에 크게 영향받았다고는 하지만 광대한 열도와 인도에는 존재하지 않은 많은 고유 식물의 존재로 인해(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호주의 식물과 유사하다.) 자무의 종류는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무의 처방은 구전으로 세대에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으며 특히 고립된 오지는 일종의 마을 개업 의사인 두쿰(Dukun, 자바어)에 의해 처방되고 계승되었습니다.



자무의 역사

인도네시아의 전통의학에 관한 지식은 지역적인 차이와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식물에 대한 전통 의학적 지식은 자바인들이 사용해온 자무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무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장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약 8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부자바의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temple)의 양각화중에는 '칼파타루(Kalpataru)'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는 신화적인 나무로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 아래서 자무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제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자바족 사람들은 전통 자무에 쓰이는 처방전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를 '스랏(Serat)' 혹은 '프림본(Primbon)' 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들은 론따르 야자(Lontar Palm)의 마른 잎에 산스크리트어나 고대 자바어로 쓰였습니다. 세대를 거쳐 많은 종류의 고대 처방전이 쓰였으며 그 기록들은 현재 중부 자바 수라카르타(Surakarta, 오늘날의 솔로 Solo)의 빠꾸보워노(Pakubuwono) 왕이 있는 망꾸네가란 성(Kraton Mangkunegaran)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자바인들의 위대한 유산이며 오늘날까지 자바인들의 중요한 전통의약처방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무의 준비와 처방

많은 종류의 자무를 준비하고 처방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5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Jamu Segar - 'segar' 는 신선하다는 의미로 신선한 상태의 식물 원료 자무를 그대로 마시는 형태의 자무를 말합니다.
2. Jamu Godogan - 'godogan' 은 '끓인'이라는 의미로 자무의 원료를 물과 함께 끓여서 그 끓인(달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원료는 미리 말린 것이나 신선한 것을 사용합니다.
3. Jamu Seduhan - 'seduhan' 은 '넣다', '섞다'의 의미로 자무원료를 분말로 만들어 물에 섞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무 분말 가루를 끓는 물에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PT. Djamu Djago, PT. Nyonya Meneer, PT. Sido Muncul 과 같은 자무 대량 생산 업체에 의해 생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4. Jamu Olesan - 'oles' 는 '문지르다' 의 의미로 'Olesan' 은 몸에 바르고 문지르는 외용 약 자무를 뜻합니다. 'Pilis' 혹은 'Tapel' 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신선하고 촉촉한 자무 반죽의 형태로 몸의 이상 부위에 올려놓고 바르거나 문지릅니다.

5. 알약(Pills), 태블릿(Tablet) 혹은 캡슐(capsules) 형태의 자무 - 오늘날 현대적인 문화에서 자무는 알약이나 태블릿 혹은 캡슐의 형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서양식 약들처럼 유통 및 복용과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자무 갠동(Jamu Gendong)

'Gendong' 은 등에 짐을 지고 배달한다는 의미로 'Jamu Gendong' 이라 함은 신선한 자무를 넣은 각각의 병들을 대나무나 라탄으로 만든 바구니에 넣어 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구니를 등에 고정하고 운반하기 위해 길고 넓은 어깨끈을 사용하는데 이를 'Selendang' 이라고 합니다. 자무판매상은 주로 여성으로 중부 자바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무 갠동은 우선 자무를 주문한 사람에게 먼저 배달하고 나머지를 판매합니다. 오늘날에는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자무 판매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마다 처방

전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주로 5가지 종류의 자무가 판매됩니다.

1. Jamu Beras Kencur (자무 브라스 끈쭈르) - 주요 원료는 쌀(Beras)과 생강의 일종인 Kencur (Kaempferia galangal)의 근경이다. 고된 노동 후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신다.

2. Jamu Cabe Kencur (자무 짜베 끈쭈르) - 감기와 열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주원료는 후추 열매로 Cabe (Piper retrofractum)와 Kencur 이다.

3. Jamu Kunir Asem (자무 꾸니르 아슴) -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주원료는 'kunir (Curcuma longa) 근경과 asem 열매 (Tamarindus indica) 이다.

4. Jamu Paitan (자무 빠이탄) - 식욕 촉진이나 소화불량에 이용한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주재료는 'Brotowali (Tinospora tuberculata) 이다.

5. Jamu Galian (자무 갈리안) - 질병 예방을 위해 체력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사용하며 많은 약용식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호에 계속-





뺨자실라 정신을 새기는 반공박물관

Museum Diorama Monument Pancasila Sakti - Lubang Buaya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10월 1일, 이 날은 인도네시아가 뺨자실라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국가의 번영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반공박물관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으며 공휴일에도 개관한다.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로,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지만, 우리나라의 피비린내 나는 민족사를 연상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찾아가는 길은 남쪽 Bogor 고속도로를 타고 Pondok Gede 입구로 나와 JL. Pondok Gede Raya에서 남쪽으로 돌아 JL. Pancasila Sakti로 간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로 약 45분 거리이다. Halim 비행장과 가까우며, Haji 병원도 보이는데 Halim 골프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이곳은 1960년대까지는 자카르타에서 외롭게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강 가까이에 하얀 악어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Lubang(=hole) buaya(=crocodile)라고 불린다. 이곳은 인도네

시아 공산당(PKI)의 트레이닝을 위한 특별한 장소였다. 건물들은 군대의 숙영지와 부엌, 그리고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훈련을 받으며 생활했다. 1965년 10월1일 새벽에 일어난 두 번째 공산당 사건 이후, 1981년 10월1일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고 공산당의 잔악성을 알리기 위해 뺨자실라 정신을 새기는 반공박물관을 설립하였다. 그 후, 1992년 10월 1일 뺨자실라 기념관을 개관한다. 이곳에 가면 공산당의 생성 과정에서부터 1965년 멸망할 때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산당 사건은 1948년 마디운(Madiun)에서 있었다. 부유한 이슬람 계층은 군부를 지지했고 빈민 계층은 공산당을 지지했다. 동부 자바 솔로 강 지역의 소작농들이 지주에 대항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성된 것이 공산당이다. 또 군부는 화

교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기에 바빴다. 공산군 대장 Amir Sjarifuddin과 Musso의 활약상을 보면 남부군의 이현상이 생각난다. 마디운 사건은 인도네시아 군부가 최초로 행한 무자비한 탄압이었으며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두 번째 공산당 사건이 일어날 당시 군부와 공산당은 서로 격돌하지 않고 빙빙 돌기만 하면서 상대를 쓰러뜨릴 음모를 꾸몄다. 영국과 미국이 모종의 작전을 계획했고 이 작전에는 군부가 개입되었다고 외무장관이 폭로했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경호원 운통 대령은 대통령에게 군부의 음모를 제지할 것을 탄원했고, 군 최고 장성인 Yani 장군과 그 일당들을 영구히 축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당시 국민들도 그들을 완전히 타락한 집단이라고 믿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승낙을 했다. 거사 당일 격려가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치적 인물이었다고 흥행사 같았던 수카르노의 일면이 보인다. 운통 대령과 그의 전우들은 계획대로 장성을 납치했고, 이 행위가 명분이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이 사건이 1965년에 일어난 두 번째 공산당 쿠데타다. 이때 군 장성 6명과 부관 1명이 희생되었다. 그 후 군부가 공산당 소탕하는 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폭력과 사살이 난무했다. 그로 인해 약 25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Museum Penghianatan PKI(Komunis): 공산당의 배신(판짜실라에 대한) 박물관

반공박물관 앞 광장에는 공산당(PKI)이 시체를 이곳으로 옮길 때 사용했던 트럭도 볼 수 있고, 시신을 Kalibata 국립묘지로 옮길 때 사용했던 차도 전시되어 있다. 이때 희생된 군인대장 Yani의 개인차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탔던 토요타(Toyota) 자동차도 전시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34개의 디오라마 형식을 갖추어 1981년 10월 1일에 문을 열었다.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세 장의 사진이 있다. ① Madiun 반란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잔인하게 희생당하는 사진 (1948년 9월 18일) ② 혁명 영웅들의 시체 발굴 작업(1965년 10월 4일) 사진 ③ 쿠

데타를 일으킨 공산당들이 군사 재판을 받는 사진 (1966년-1967년)

디오라마 홀에는 공산당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배반하고 대항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으며, 공산당들은 마시즘, 레닌 이론, 공산주의 이념을 잘 체계화 시켰으나 국군과 국민이 공산당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디오라마 [1] 세 지역의 사건, 독립과 함께 지하 조직 공산당이 서서히 등장(1945년 11월 4일) [2] 공산주의자 Ce' Mamat Gang 가 일으킨 테러로 정부 관리가 살해당해서 강에 버려지는 장면(45.12.9) [3] 땅그랑에서의 티반 군대의 폭동(45.12.12) [4] 45년~48년 동안에는 공산당이 특히 중국 사람을 많이 죽임 [5] 수마트라 궁전에서 왕을 죽임(46.3.9) [6] 임금인상 데모(48.6.23) [7] 수라카르타에서 시위(48.8.19) [8] 인도네시아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에트 인니 정부라고 정하고 마디운에서 시위함(48.9.18) [9] 7명의 경찰 납치. 모두 변기 속에 넣어서 죽임(48.9.20) [10] 납치와 살인(48.9.28) [11] 수꼬(Sooko)에서 인니 정부군과 공산당 경쟁(48.9.28) 열한 번째 디오라마 맞은편에 자바 중부와 서부의 모형이 있는데 빨간불은 공산당 진지이고 파란불은 정부군을 의미하는데 정부군이 공산당을 추격하는 것이 잘 나타나있다.

[12] Wonogiri 지역 Tirtomoyo 언덕에서의 잔인한 대학살. Nasuhi대대와 생도들이 56명을 살해한 공산당(PKI)군대를 공격함(48.10.4) [13] 공산당 대장 Musso가 항복하지 않고 정부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다 죽음(48.10.31) [14] 212명의 시민을 납치하여 산속의 4m 공간에 56명을 모두 넣어서 죽임(48.10.4) [15] 정부군이 공산당 지도자 Amir Sjarifuddin를 체포. Amir Sjarifuddin과 Musso는 두 대대의 보호 하에 madiun의 gambes산으로 가다가 헤어졌고, 길고 어려운 여정 뒤에 Amir는 동굴에 숨었다가 포위됨(48.11.29) [16] 경찰서 습격(51.8.6) [17] Tanjung 지역을 혼란스럽게 함(53.3.16) [18] 5번째 공산당 전당대회(54.3.14) [19] 공산당인 Aidit의 재판(55.2.25) [20] Medan에서 공산당 문화 캠페인. PKI는 조직적으로 공산주의의 이미지를 예술과 문학적인 요소로 포장하여 비정치적인 관중들을 "정치는 지휘자다" 라는 슬로건으로 정치화시킴(63.3.25) [19] 공산당 회의에서 시골지역 군인을 모두 몰아냄. ABRI를 반대하는 캠페인은 PKI에 의해서 독립전쟁(1945~1949)기간부터 진행(1964~1965) [21] 공산당이 이슬람 종교지도자를 괴롭히는 장면. PKI는 이슬람 정치인들과 다

수 조직들을 위협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들의 힘을 대중화하는 것은 실패(65.1.13) [22] 군인을 목 잘라 죽이는 장면(65.5.1) [23] 스나이안 경기장 앞에서 공산당혁명 퍼레이드(65.5.23) [24] 동부자바 관청 침입(65.9.27) [25] 공산당이 국립방송국(RRI)을 점령(65.10.1) [26] 족자에서 대령 [26] 중령을 죽임(65.10.21) [27] 자카르타 반맹광장에서 빨찌실라 정신으로 공산당 해체 [28] 추방 쫓기대회(65.11.9) [29] 족자에서 공산당 최고당수 Aidit를 체포하는 과정(65.11.22) [30] 공산당 Nyono를 군사재판 하는 장면. 그는 Nyono가 G.30.S/PKI 반란의 주동자로 공산주의자 신념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Parcasila 다섯 법률)에 대항함. 후에 사형을 당함 [31] 대학생과 군인이 공산당 해체요구(66.3.12) 수카르노 대통령은 국방장관인 수하르트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한다(66.3.11) [32] 서부자바에서 굴 속에 숨어 있던 공산당을 군인이 체포(68.7.20) [33] 무장한 군인들이 숲속에 숨어 있는 공산당 잔당을 포위하는 장면(73.1.27) [34] 칼리만탄에 마지막 공산당 지도자 S.A. Sofyan가 총살당함(74.1.12)

Museum Diorama Monument Pancasila Sakti

빨찌실라 기념관은 1992년 10월 1일에 문을 열었다. 희생된 군인들의 사진과 죽어서 우물에 던져질 당시에 군인들이 입었던 속옷·반지·안경·유품과 그들이 맞았던 총알이 전시되어 있다. 낚시 도구·골프·테니스 등, 희생된 장군들이 평소에 즐겼던 취미 활동에 관한 것들도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전시된 디오라마는 [1] 공산당 대표 3명이 1965





년 9월30일의 거사에 대한 토론 [2]정부군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지역(LUBANG BUAYA)에서 자발적으로 훈련 (65.7.5 - 65.9.30) [3] 희생된 7명의 군인 중 3명은 죽어서 이곳, 루방부아야로 왔고, 4명은 이곳으로 납치 되어 물매를 맞고 죽음(65.10.1) [4] 군인들이 할림 비행장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65.10.2) [5]수하르토의 지휘 하에 우물에서 시체를 꺼내는 장면 (65.10.4) [6] 희생된 군인들이 깔리바따 영웅묘지로 향함(65.10.5) [7] 독립 영웅이었고 국방 장관인 나스디온 장군(Suryani Nasution)이 부인의 등을 타고 옆집 이라크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장면(65.10.1) [8] 군인대장 야니(Ahmad Yani, 당시 별 3개)장군의 집을 공산당 G30S/PKI 150명이 포위하고, 경비원과 일하는 사람을 협박해서 부엌문에서 장군을 불렀다. 야니 장군은 그들과 용감하게 격투했지만 결국 7발의 총을 맞고 사살당하는 장면(65.10.1) 장군의 시신은 질질 끌려 나가 트럭에 실렸다. G30S/PKI의 무리들은 사건 종결 후 20년 후에 사형이 집행 [9] 소에프라프토 (R. Soeprapto) 장군은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전통 복장을 입은 채로 끌려갔다.(65.10.1) [10] 하르조노(M.T. Harjono(65.10.1) 장군 역시 총살당함 [11] 시간을 개의치 않는 대통령의 호출에 이미 익숙해진 파르만 참모 총장(S. Parman)은 곧 옷을 갈아 입고 그들을 따라감(65.10.1) [12] 판자이만(D.I Pandjaitan) 장군은 용감히 맞섰으나 그 자리에서 총살당함(65.10.1) [13] 납치당하는 Soetojo. S 장군 (65.10.1) [14] 나스디온 장군 대신에 희

생된 부관 Andreas Tendean(65.10.1). 그는 지금 Mampang의 Jl. Tendean으로 살아있다. [15] 나스디온 장군을 보호한 경찰의 죽음(65.10.1) [16] 나스디온 장군은 대사관 수풀 속에 몸을 숨겨 화는 면했으나 그의 어린 딸이 죽음 (65.10.1) 격분한 그는 연설을 통해 대학살극에 불을 지폈다. 그의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는 이미 그의 딸과 같은 어린 소녀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수없이 죽어 갔다. 이어진 대학살극은 20개월이 지나서야 막을 내렸다. 극심한 증오는 이렇게 파괴와 불행을 가져온다.

우물과 운동장

예식 때 쓰이는 운동장은 우물(웅덩이) 앞에 펼쳐져 있고, 우물 옆에는 납치된 군인들(Raden Soeprapto, Siswondo Parman, Soetojo Siswomihardjo, Andreas Tendean)이 공산당에게 억류당하고 고문당하는 장면이 실물 크기의 밀랍 모형으로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이곳은 공산당이 중요한 일을 했던 곳이다. 그 날의 잔혹과 아우성이 그대로 보이고 들리는 듯하다. 이때 Yani 장군을 포함한 장군 3명은 이미 죽은 상태로 이 우물에 집어 던져졌고, 3명의 장군과 1명의 부관은 이곳으로 끌려와서 물매를 맞고 총살을 당한 후 웅덩이 속에 내던져졌으며 그 위를 오물과 쓰레기를 덮었다. 그 우물은 깊이가 12m 폭이 75cm로, 깊고 산소가 없어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시체를 발굴했지만 시체가 썩고 부어 있어서 작업이 매우 어려웠다. 그때 희생되었던 군인 중





한명은 머리를 맞아서 형체가 없을 정도였고, 특히 성기가 잘리고 눈이 빠지고 팔이 잘리는 등 잔혹하게 살해당한 부관의 시신을 본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수하르토는 시체 발굴 작업을 TV로 크게 보도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 마녀사냥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수하르토는 이렇게 20세기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운동장의 국기게양대는 높이가 7m이고, 운동장 양쪽에 둥글게 잘 다

듬어진 블럼빙 나무가 7그루씩 있다. 담의 길이가 30m인데 이는 9월 30일을 뜻한다. 또 우물로 올라가는 계단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운데 계단은 7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때 희생된 7인의 군인을 상징한다. 계양대에서 8개의 계단을 올라가 45발자국(45개의 블록)을 걸으면 우물이 나온다.(1945년 8월을 의미) 우물은 자바인들의 joglo 스타일로 디자인 된 지붕아래에 있는데 지붕 내면도 7단의 계단식으로 꾸며져 있다. 우물 뒤에 있는 7개의 계단 위에는 가슴에 뺨짜실라(Pancasila)로 무장한 가루다상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으며, 이 뺨짜실라 기념비는 17미터의 사다리꼴로 되어 있다.(17일) 그 앞에 희생된 7명의 군인은 각 1.5미터 크기의 동상으로 가루다상을 둘러싸고 늠름하게 서 있다. 기념비의 아래 부분에 새겨진 양각에는 1965년 쿠데타를 정부가 성공적으로 지휘해 성공적으로 진압하는 사건을 새겨 넣었다. 수하르토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즉 이 기념비는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1965년 10월 1일, Pancasila 이념을 위협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을 알리고 혁명의 영웅들을 추모한다. 10월1일, 이곳에서 열리는 의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한다. 공산당들이 사용했던 부엌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초라한 회의장도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기 때문인지, 주변에는 박물관을 소재의 중심으로 하는 귀신 이야기가 많다. 군인 대장 Yani가 쿠데타로 죽자 군사명령권을 짚은 대장 수하르토가 대신했으며, 몇 개월 동안 폭동 진압 과정에서 공산당 지지자들 수백만 명을 죽였다. 이미 밀수로 많은 부를 거머쥔 수하르토는 공산당 쿠데타를 진압함으로써 급격히 부상하여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더 크게 만들고 그 때 희생된 장군들을 영웅화시켰다. 공산당의 노선을 수용했던 수카르노는 이미 병세도 악화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몰락한다. 10월 1일 새벽 6시에 일본인 부인 침실에 있었던 수카르노는 장군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결례를 범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얼굴을 가진 그의 지도력에도 치명타가 가해졌다.

당시 이 공군기지에는 농촌 청년, 직업 없이 거리

에서 배회하는 사람들, 시골 소녀들, 부녀자를 소집하여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납치된 인물이 단지 매국노라고만 알고 명령에 따랐고 악마 의식을 거행했다. 그 뒤 20개월 동안 공산당에 대한 대학살 극이 자행된다. 이렇게 공산당은 깨멸하고 있었다. 공산당이 다만 가난한 사람들의 조직인 줄 알았던 대부분은 공산주의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때 교사만 4만 명이 처형 또는 구금되었으며, 공산주의자 마을이라고 낙인찍히면 그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트럭 단위로 처형했다. 시신들은 강에 버려졌고 고기밥이 되었다. 사람들은 한참동안 민물고기를 먹지 않았다. 자바에서는 얼마나 처형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며, 이때 발리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 황동규의 “초가” 라는 시가 생각난다. “나는 요새 무서워져요. 모든 것의 안만 보여요. 풀잎 뜬 강에는 살 없는 고기들이 놀고 있고 강물 위에 피었다가 스러지는 구름에선 문득 暗號만 비쳐요. 허 잘린 꽃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불행한 살들이 겁 없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달아난들 추울 뿐이에요. 미치는 것도 미치지 않고 잔 구름처럼 떠 있는 것도 두렵잖아요.”

이 두 공산당 사건이 역사의 제 자리에 자리 잡히게 될 날은 언제일까. 언젠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리산의 빨치산들처럼 그들은 인도네시아 현대사에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조국은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아름다운 강과 초록 바람 속에 피로 얼룩졌던 이야기는 지금은 까마득한 전설이며 잊혀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너무나 많은 청춘들이 어떤 어휘로도 설명될 수 없는 비참 속에 죽어갔다. 문득 소설 지리산이 생각

난다. 남부군의 이태는 그렇게 죽어간 젊은 녀들에게 공양의 뜻으로 남부군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좌익 게릴라 부대의 이야기에 관한 책은 없다. 그들은 언제쯤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Jl. Pancasila Sakti Pondok Gede
(Halim 비행장 가까이에 위치)
유적지 개관 : 매일(공휴일 포함), 9:00-17:00 /
입장료 : 5000루피아



253회 문화탐방

<문명-야만>이라는 이분법식 도식의 오만을 깨는 야성과 전율의 일탈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2년 6월 21일(토) 9:30~12:00
(탐방지에서 모임)

탐방지 : ROEMAH DJAWA
(021) 7591-3558
Jl. Lebak Bulus III No. 85-Z
Lebak Bulus, Cilandak, Jak. Sel.

회비 : 25만루피아
연락처 : 0817-708-253, 0816-190-9976,
(021) 527-3630
ballonjoa@hanmail.net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수집한 예술품의 전시장인 루마자와에는 잊혀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바원인이 발견된 솔로강가의 구석기 시대 유물과 영혼과 육신의 일체화를 통해 삶을 가로지르는 영겁의 시간이 있는 아스맛 유물을 만나 보세요.

-문명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다- (레비스트로스)





중국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파에 큰 역할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하 화교)과 이슬람은 형용모순인가? 인도네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한인조차 화교들은 거의 불교가 아니면 기독교 유교를 받고 있으며, 무슬림이 있다면 극소수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십상이다.

화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다. 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자칫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기 이전에 종교 당국은 중국인과 화교가 이슬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주제로 하는 학술연구조차 금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인도

네시아인들에게 화교와 이슬람을 연결 짓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남아시아 이슬람은 무수한 나라와 도시에 뿌리를 둔 역동적인 코스모폴리탄 문화와 결합돼 있어, 원류인 아라비아의 영향은 물론, 인도와 중국의 전통도 혼재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인도네시아 문화와 이슬람에 미친 영향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녹아 들어서 간과하기 쉽다.

세계에 퍼져있는 무슬림 소수 종족들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종족이 중국 본토의 무슬림들이다. 중국의 대제국 당나라(618-907년) 때부터 이슬



영락제

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중동 사람들은 바다와 육지를 통해 중국과 교류했다. 이슬람은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 중국 광둥(廣東)과 남동부의 항구도시로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중해 동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북서부 이어지는 '실크 로드'를 통해 장안(현재의 시안)과 베이징에 이슬람을 전파했다.

중국 명나라 왕조 시대의 환관으로 이슬람교를 믿었던 정화(鄭和, 1371~1434년) 제독은 영락제(永樂帝)의 명령에 따라 남해에 일곱 차례의 대원정을 떠난 것으로 유명하다. 정화의 함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진출했다. 정화 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1405년 6월에 제1차 원정을 떠났다. 보선(寶船)의 길이 120m 폭 56m가 넘는 당시 초대형 선박이 포함된 정화의 함대는 총 62척 선박에 승무원 총 2만7천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바 섬 스마랑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군도에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스마랑에 가면 정화 사원(Sam Poo Kong)이 건재해, 당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그룹으로 인도 서부지역을 기반으로 특유의 상술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구자랏(Gujarat) 상인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슬람의 뿌리를 아랍 세

계로만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학에서 인도네시아 문화와 동남아시아 정치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진 켈만 테일러 교수가 지적하듯, 인도네시아 항구들을 개발하고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무슬림 무역상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든 이들은 중국인들이었다. 그 가운데 무슬림이 된 중국인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중국인들도 인도네시아와 무슬림을 연결하며, 이슬람을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중동의 이슬람 네트워크에 연결해줌으로써 첫 무슬림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자바섬 최초 이슬람 왕국 드막(Demak) 건립자는 화교

저명한 인도네시아 역사학자 슬라멧 물리아나도 인도네시아에 이슬람국가가 탄생하는 데 자바섬의 중국계 무슬림공동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물리아나는 힌두 제국 마자빠히트(1293~1500년)을 붕괴시키고 자바 최초의 이슬람왕국 드막(Demak)을 세운 라덴 빠따(Raden Patah)의 어머니가 중국계 무슬림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실제로 중국 기록에 라덴 어머니의 이름이 '진 분'으로 나와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또한 이슬람을 자바에 전했다고 알려진 전설의 성인 '왈리 송오(Wali Songo)' 아홉 명 가운데 수난 응암뵐도 중국계 뿌리를 지녔다. 중국 기록에는 응암뵐이 '봉스위호'로 기록되어 있다.



Sunan Ampel

15세기부터 이슬람이 동남아시아에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뿌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역사학자 리드와 사이디는 "중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큰 역할을 했지만, 역사책에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이 아



Masjid Demak

랍이나 인도 사람으로 기술된 것은 왜곡된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며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시기에 토착민 무슬림과 화교 무슬림을 편가르는 전략을 펼쳤고, 한편으론 화교들을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켰다”고 주장했다.

부디오노 인도네시아화교무슬림연합(PITI) 부회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교 1천만 명 가운데 수십만 명이 무슬림이며, 인도네시아 남성 무슬림 복장인 바주 꼬꼬(baju koko)도 중국말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도자이며 제 4대 대통령인 고(故) 압두라마 와히트(애칭: 구스두르)은 자신의 조상에 대해 중국 혈통이라며 밝혀, 화교가 무슬림을 전파했음을 한번 더 확인시켰다. 와히트에 따르면 자



Abdurrahman Wahid

바섬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군도를 호령했던 마자빠히트 힌두왕국의 브라위자야 5세가 중국의 캄파(Campa) 공주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탄앵히안이고 둘째 딸은 탄아록이다. 탄앵히안은 드막왕국을 세운 라덴 빠따이다. 탄아록은 이슬람 신도인 화교 탄킴한과 결혼했다. 탄킴한은 드막왕국을 세우는데 핵심 인물로 와히트 대통령의 조상이다. 와히트의 할아버지는 하심 아샤리로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단체 나들라뿔올라마(NU)를 설립했고, 그의 아버지 와히트 하심은 무슬림 독립운동가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을 믿는 화교는 종교와 민족 측면에서 모두 소수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은 최고 계급인데, 이슬람을 들여온 화교 무슬림은 그 아래 계급으로 소외와 차별을 당하는 아이러니가 숨어있다.

[참고문헌] ‘나의 이슬람’ (율리아 수리아푸스마 지음, 구정은 옮김), 인도네시아사(양승윤 편저), 인도네시아 언론 등.

이산가족

시 : 신영덕 / 그림 : 이태복

열세 살 때
네 살 난 사촌동생 데려다 주기 위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갔다

며칠 지나면 통일이 된다고 했지만
영영 돌아갈 수 없어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다

스물네 살에 결혼하여
행복하였지만
서른다섯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다

살아남기 위해
남겨진 세 아이를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팔순이 넘은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으리라
동생들은 어떻게 지낼까

오늘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배드민턴을 하며 슬픔을 날려 보낸다.



신영덕
문학평론가
인도네시아 대학교 객원교수



회사 청산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 해산 청산하는 방법과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상의 사실을 말하며,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정관관에 규정한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회사가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뜻한다. 해산은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청산은 회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처리하는 순서는 전 해산 후 청산이다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한다.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회사 정리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뜻한다.

1. 해산 발생 사유

- 1.1. 주주총회의의 해산 결의
- 1.2. 정관에 약정된 회사 존속 기간의 종료
- 1.3. 법원의 회사 해산 명령
- 1.4.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확정된 회사의 전체 재산이 파산비 (“예” 를 들면 파산 판결문 공시비, 관재인비, 전문가비 등)를 카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 파산 판결이 취소된 경우
- 1.5. 파산법에 규정한대로 파산이 확정된 회사의 재산이 지불불능의 상태로 확정된 경우
- 1.6. 회사의 사업허가서를 발급한 정부 기관 에 의 해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된 경우에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2. 해산 결의

2.1. 주주총회 소집

2.1.1. 년례 주주총회 혹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가능하다.

2.1.2. 주주총회 소집권은 이사회에게 있다. 따라서 이사회원이 복수인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권이 있으며 이사회원이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권이 사장에게 있다.

2.1.3. 표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1/10(십분지일)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명 혹은 복수의 주주는 이사회에게 안건을 밝히고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2.1.4. 감사회도 이사회에게 안건을 밝히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1.5. 이사회는 상기 “2.1.3.” 항의 법정 요건을 갖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의 주주총회 개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1.6. 이사회가 상기 “2.1.3.” 항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2.1.3.” 항의 주주는 안건을 밝혀 감사회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재요구 할 수 있다.

2.1.7. 상기 “2.1.6.” 항의 감사회는 “2.1.3.” 항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십오)일 이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1.8. 상기 “2.1.7.” 항의 감사회가 “2.1.3.” 항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는 상기 “3.1.6” 항의 주주는 회사 관할 지역의 지방법원장에게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1.9.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허가 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장은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담당 판사가 관계당사자(대표이사, 감사 및 신청한 주주)를 법정에서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 후 허가 여부를 판결한다.

2.1.10. 관할 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항소를 불허한다. 2.1.11. 관할 지방법원이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1.12. 주주총회 소집장에는 주주총회 개최일, 시간, 장소 및 해산 안건을 명시해야 한다. 해산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주주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한 주주 전체가 해산에 찬성해야만 해산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2.1.13. 주주총회 소집은 늦어도 주주총회 개최일 14(십사)일 이전에 전체 주주에게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일과 개최일은 14(십사)일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6(십사)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주주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전 14(십사)일 주주총회 소집 절차없이 하더라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2.1.14. 법규상 주주총회 소집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일간지 신문지상에 공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과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장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적법 시비 여부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2.2. 주주총회 개최 장소

2.2.1. 주주총회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2.2.2. 정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법적 소재지(주식회사법상 시/군) 혹은 정 관상에 표기된 주사업장이 있는 시/군에서 개최해야 한다.

2.2.3. 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소재지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법적인 소재지가 팔리만탄(보르네오)인 회사가 자카르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증권시장 소재지인 자카르타에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2.2.4. 전체 주주(100%) 참석 시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 어느 곳에서나 주 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참석 주주 전체(100%) 찬성으로만 해산 결의가 가능하다.

2.3.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일반문서로 작성된 의사록은 공정증서로 변형시킨 후에 법무부에 접수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었을 지라도 공정증서로 일반문서 상태로는 법무부에서 접수를 거부한다.

2.4. 주주총회 개최 및 참석 방법

주주가 직접 신체적으로 참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하고 참석하거나 주주가 신체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으나 의장과 참석하는 모든 주주가 서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서로 청취할 수 있는 영상 매체, 비디오 매체 혹은 다른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할 수 있다.

2.5. 주주총회 의장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 참석자 중 한사람의 순위로 맡는다.

2.6. 해산 안건 주주총회 성회 정족수

2.6.1. 해산 안건 주주총회의 성회 정족수는 표결

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최소 3/4(사분지삼) 참석으로 성회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성회 정족수가 주식회사법의 정족보다 더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6.2. 제1차 주주총회가 성회 정족수 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6.3. 제2차 소집 주주총회의 성회 정족수는 표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최소 2/3(삼분지이) 참석으로 성회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제2차 소집 주주 총회의 성회 정족수가 더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6.4. 제2차 소집 주주총회도 성회 정족수 미달로 성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성회 정족수를 낮추어 제3차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2.6.5. 성회 정족수를 낮추어 제3차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허가 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장은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담당 판사는 사실 여부를 조사 후 허가 여부를 판결한다.

2.6.6. 관할 지방법원의 성원 정족수를 낮춘 제3차 주주총회 소집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항소를 불허한다.

2.6.7. 관할 지방법원이 성원 정족수 제3차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6.8. 제2차 및 제3차 주주총회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야 한다.

2.6.9. 제2차 및 제3차 주주총회는 전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10(십)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2.6.10. 주주총회에 제삼자 혹은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혹은 직원도 위 임장으로 주주를 대리할 수 있으나 상정된 안건의 통과가 만장일치로 되지 않고 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혹은 직원은 표결권이 없다.

3. 청산인

3.1. 주주총회는 해산 결의와 동시에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다. 청산인 임명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주주총회의 권한이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청산 책임이 있다.

3.2. 청산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를 임명함이 바람직하며,

3.3.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이사가 현지에 머무르면서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이사회에서 먼저 중요한 자산을 정리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이사회는 청산 업무를 현지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현지 전문가가 청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법이 현지 실정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해산 결의 이후 금지 사항 및 의무 사항

주총에서 해산이 결의되면 정관 및 사업허가서에 허가된 사업행위를

해서는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산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산 청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만 허용된다.

5. 해산 청산 주요 절차

5.1.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5.2. 해산 공고

5.3. 해산 결의를 전 채권자에게

5.4. 근로자 퇴직 처리

5.5. 자산 정리

5.6. 채권채무 정리

5.7. 법무부관에 해산 등기

5.8. 관보 공시

5.9. 인허가서 발급 관공서에 해산 보고 및 인허가서 반납

5.10. 관할 세무서에 폐업 결산보고서 제출 및 납세의무자 등록증 말소 신청

5.11. 세무서 실사

5.12. 세무서 확정서

5.13. 주주총회에 청산 결과 보고

5.14. 청산 공고

5.15. 법무부에 법인격 상실 등기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누구에게나 좋은 시절이라 추억할 만한 시간들이 있거나 믿습니다.

새 주말드라마 좋은 시절은 우리가 있고 있었지만 그때가 아니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냉정하게만 보이면 강동석 검사는 옛 사랑이지 현재 다시 만난 혜원의 억울함과 사심을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중 모험에 빠지게 되어 혜원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데...

Ini fitnah
Faktanya berbeda
이건 모함입니다.
사실과 달라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관련 어휘로는 정말/ 사실/ 진리/ 현실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Fakta/Kenyataan/Kebenaran/Keterangan/Bukti등의 단어가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1. Fakta : Sesuatu yang benar-benar ada atau terjadi

실존하는 어떠한 사실이나 또는 벌어진 일/발생한 일 또는 사건

Contoh: Faktanya Joko Widodo terpilih sebagai gubernur DKI Jakarta pada tahun 2012.

Joko Widodo가 2012년 자카르타 특별시 주지사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생한 일)
Berita yang disampaikannya itu berdasarkan fakta bukan hanya dikarang-karang.
전달된 보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것이지 단순히 지어낸것이 아니다.
(발생한 사실)

2. Kenyataan : nyata(형용사) 의 어근에서 온 명사로 jelas sekali 확인(입증) 되어 분명한것을 나타냄 (변치 않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

Contoh: Dia tidak bisa menerima kenyataan bahwa orangtuanya hilang dalam kecelakaan pesawat tersebut.
상기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Kebenaran : benar(형용사) 의 어근에서 온 명사로 옳고 그름을 표현할때의 사실(진리, 정직함, 정의)을 뜻한다. * 종교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됨.

Contoh : Kebenaran itu paling diutamakan oleh seorang jaksa.
판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것은 정직함이다.
(올바름/정의)
Tuhan kita yang menjadi kebenaran.
진리이신 우리의 하나님

4. Keterangan : terang(형용사)의 어근에서 온 명사로 sesuatu yang menjadi petunjuk, penjelasan 어떠한것의 지침이 되거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는 설명(해설)함을 나타냄.

Contoh : Keterangan yang diberikan saksi turut memberatkan hukuman bagi tersangka.
증인의 증언(증명)은 용의자의 형량을 가중 시켰다.
Guru itu memberkan keterangan bagaimana cara mengerjakan soal itu.
그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5. Bukti : keterangan nyata 사건에 입각한 설명또는 sesuatu yang menyatakan kebenaran suatu peristiwa 어떠한 사건의 사실 /진실을 확인(입증)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증거, 증명, 확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Contoh : Dia telah membuktikan bahwa korban bukan mati dibunuh.
그는 희생자가 살인된것이 아님을 입증(확인시켰다)했다.
Kuitansi ini bukti saya sudah membayar uang muka.
이 영수증으로 내가 보증금을 지불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어떠한 사실을 확인 시킴)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베스트 오브 스페인
Best of Spain 101

이재환 저 | 테라(TERRA)

꽃보다 스페인

<꽃보다 할배>로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페인 전문가인 저자가 스페인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핵심 도시와 근교 도시, 맛집 등을 소개한다. 각 도시의 명소별 실용적인 교통정보와 주요 도시 상세지도, 유로자전거나라의 스페인 지식가이드 투어 할인 쿠폰도 수록되어 있어 여행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다. 도시마다 '포인트'를 통해 반드시 가봐야 할 핵심 명소의 교통 및 기본정보 소개했고, 스페인 대륙을 잇는 기차 정보,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지도 & 지하철 노선도,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그라나다와 같은 주요 도시와 미술관 투어 할인 쿠폰을 수록하여 여행자들이 이 책 한 권 만으로도 스페인 여행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기업의 시대

CCTV 다큐 제작팀 저/허유영 역
| 다산북스

기업 역사,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
까지 왔나

지난 수백 년 동안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필요한 것을 만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혁신의 주역으로, 때로는 탐욕의 화신으로 역사를 썼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성장과 침체 사이에서 부침을 겪는다. 이 책은 처음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한 먼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의 글로벌기업까지, 수 세기에 걸친 기업의 진화와 발전, 쇠퇴와 번영의 순간을 다룬다. 세계 각국에서 기업이 직면했던 역사적 사건, 성공적인 이력을 만든 기업의 비밀, 그 이면에 숨겨진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옹호자들

김영준, 최강욱, 손아람, 김진영, 강영구,
이재호, 신동미, 전관석, 정종진 등 저
| 궁리



국가와 싸운 변호사들의 이야기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양산되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같은 공안 관련 사건,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은 주요 사건을 정리하여 좀더 많은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기본권을 어떻게 후퇴시켰는지를, 담당 변호사와 당사자가 이야기한다.

타인이라는 여행

턱넛한 저/진현중 역 | 알에이치
코리아(RHK)



관계로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턱넛한 스님이 쓴 책이다. 인생에서 힘든 게 바로 관계다. 타인에 맞추려고 하면 자아가 손상되는 것 같고, 자아만 지키자니 관계에 진전이 없다. 이 책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소통의 기술을 알려준다. 턱넛한 스님이 쓴 기존의 저서들이 명상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초점을 뒀다면 이 책은 타인, 더 나아가 사회와의 소통에 좀더 비중을 둔다.

차마癒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

안 앙설랭 슈창베르제, 에블린 비손
죄프루아 공저/허봉급 역 | 민음인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처방전

프랑스의 저명한 두 심리학자가 펴낸 상실과 애도에 대한 책.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 갖가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의 경험을 모으고 분석했다. 두 저자는 그들 자신도 상실을 경험했다. 슈창베르제는 십 대에 여동생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죄프루아는 겨우 육 개월 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저자들은 그 고통을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아픔에서 보다 잘 헤쳐 나오지 못한 실수를 다른 이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로 마음 먹었다. 이 책이 나온 계기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인간이 겪는 상실과 고통, 외로움, 분노, 좌절, 헤어짐에 대해 다루면서 애도의 상태를 건강하게 벗어나는 법에 대해 쉽고 간결한 언어로 서술한다.



우리는 왜 짜증이 나는가

조 펠카, 플로라 리히트만 공저/
구계원 역 | 문학동네

짜증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짜증은 일종의 '사회적 알레르기'다. 사회적 알레르기는 다른 타인에 비해 방어막이 얇은 배우자 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찹찹대며 음식을 먹거나 다 쓴 휴지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는 등의 매일 혹은 가끔씩 사회적 알레르기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감정적 폭발이 일어난다. 대부분 이런 경우 상대방을 피하지만 연구자들은 배우자의 짜증나는 습관을 받아들이기, 상대방의 별난 점을 재평가하기 등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똘을 노력할 때 짜증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일상적 불쾌와 짜증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과학적 설명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

최민석 저 | 창비

유쾌한 소설가 최민석의 첫 소설집



2010년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하고 2012년 장편소설 『능력자』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주목을 끈 최민석의 첫 소설집이다. 등단작인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를 비롯해 작가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7편의 단편이 실렸다. 장편소설 『능력자』와 『쿨한 여자』에서 보여준 재치 넘치는 문장이 단편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한다. '능청스럽고 유머러스한 화법으로 끝까지 읽게 만드는 필력이 예사롭지 않다' (창비신인소설상 심사평)라는 평이 말해주듯, 유쾌한 소설집이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프리모 레비 저/이소영 역 | 돌베개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치즘과 인간의 위기를 치밀하게 분석한 문제작



『이것이 인간인가』를 집필한 지 38년 만에 쓴 책으로, 아우슈비츠 경험을 바탕으로 나치의 폭력성과 수용소 현상을 분석한 에세이다. 레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한 해 전에 쓰고, 생환자로서 그의 삶의 핵심 주제였던 아우슈비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유서와도 같은 작품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강제수용소 안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가라앉은 자(죽은 자)와 구조된 자(살아남은 자)를 가로지르는 기억과 고통, 권력 관계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세월호 성금 모금

번호	기업, 단체명	대표자	금 액	
			USD	IDR
1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1,000	
2		이 정		5,000,000
3	PT. DONGAN KREASI	박헌식	500	
4	한솔 인도	김 선		30,000,000
5	No Name (via atm)			1,000,000
6	PT. DAYUP INDONESIA	석용치		30,000,000
7	우리은행	최상학		10,000,000
8		양선영	100	
9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배도운		10,000,000
10	NO NAME			1,000,000
11	PT. HANKOOK CERAMIC	차상만		30,000,000
12	PT. ASIA TOP INVESTMENT	김희년		10,000,000
13	PT. STAR CAMTEX	김주철		10,000,000
14	PT. DONGJUNG INDONESIA	조규철		10,000,000
15	PT. GAYA INDAH KHARISMA	김영옥	1,000	
16	HYUNDAI E & C	박찬성		5,000,000
17	PT. UNITRA INDONESIA	정병수	100	
18	일요신문	구자성		16,600,000
19	ROTC	김수용		5,000,000
20		김성은	100	
21		이원주	500	
22	JAVA PALACE HOTEL	박재한		12,000,000
23	PT. VICTOR JAYA RAYA	이호덕		10,000,000
24	SPH KEMANG VILLAGE 한국학생 일동			10,000,000
25	부산외국어대학			10,000,000
26	PT. DONG SUNG JAKARTA	김재유		10,000,000
27	PT. PRATAMA ABADI INDUSTRI	서영률	5,000	
TOTAL			8,300	225,600,000

인도네시아 이재민(지난5월 마감)을 돕기위한 구호물품을 보내주신
 찬조사 : SAE-A INDONESIA ASSOCIATION (SIA=인도네시아 세아 협력업체
 회장 엄 정호)의 협력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1 PT. ING INTERNATIONAL 엄정호
2 PT. PETRASAKTI MADYATAMA 김연중
3 PT. SKB 김재철
4 PT. YEON HEUNG MEGASARI 오춘택
5 PT. MANITO WORLD 김남현
6 PT. HAN OL INDONESIA 이민호
7 PT. WINNERS INTERNATIOANAL 하홍대
8 PT. BAJU INDAH INDONESIA 김홍기
9 PT. HANESIA MANDIRI PERKASA 복철수
10 PT. YDS 서태수 | 11 PT. IHWA TEXTILE INDONESIA 유순하
12 PT. ANUGERAH ABADI BERSAMA 유용근
13 PT. WINTEXTILE 이성길
14 PT. SUNG WON INDONESIA 이재승
15 PT. INDOBOX UTAMA JAYA 이철훈
16 PT. PRESTASI UTAMA NYATA 이홍래
17 PT. LSP INDONESIA 임성필
18 PT. MUARA TUNGGAL 최종섭
19 PT. EINS TREND 문준용 |
|--|---|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2014년 6월 5일)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1	이지현	2014	6,000,000	
2	김주철	2014	3,000,000	
3	이종후	2014	1,000,000	
4	백승래	2014		200
5	손용	2014	300,000	
6	임성용	2014	300,000	
7	이승민	2014	300,000	
8	김재민	2014	300,000	
9	신기엽	2014	300,000	
10	강희중	2014	300,000	
11	강덕재	2014	3,300,000	
12	김원모	2014	300,000	
13	권영동	2014	300,000	
14	김일태	2014	300,000	
15	이소왕	2014	300,000	
16	이완주	2014	300,000	
17	이효욱	2014	300,000	
18	정재호	2014	300,000	
19	최건호	2014	300,000	
20	최문중	2014	300,000	
21	홍석진	2014	300,000	
22	홍훈섭	2014	300,000	
23	김섭	2014	300,000	
24	김종주	2014	300,000	
25	오세윤	2014	300,000	
26	김현동	2014	300,000	
27	백승명	2014	300,000	
28	윤석환	2014	300,000	
29	이기열	2014	300,000	
30	이정호	2014	300,000	
31	최호영	2014	300,000	
32	황재규	2014	300,000	
33	한기환	2014	300,000	
34	배희윤	2014	300,000	
35	이봉규	2014	300,000	
36	이원만	2014	300,000	
37	박정호	2014	300,000	
38	양영연	2014	300,000	
39	배영태	2014	300,000	
40	최철우	2014	300,000	
41	김영수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42	이 일 하	2014	300,000	
43	이 수 진	2014	300,000	
44	장 방 식	2014	300,000	
45	조 규 철	2014	300,000	
46	최 양 기	2014	300,000	
47	엄 종 한	2014	300,000	
48	no name	2014	300,000	
49	오 세 명	2014	300,000	
50	김 세 형	2014	300,000	
51	서울메디칼	2014	300,000	
52	김 도 상	2014	300,000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00,000	
54	김 영 울	2014	300,000	
55	김 창 근	2014	300,000	
56	김 대 근	2014	300,000	
57	조 용 재	2014	300,000	
58	이 재 원	2014	300,000	
59	ROTC 김 수 용	2014	300,000	
60	ROTC 김 흥 규	2014	300,000	
61	ROTC 최 형 욱	2014	300,000	
62	ROTC 김 광 석	2014	300,000	
63	ROTC 김 기 주	2014	300,000	
64	ROTC 목 의 수	2014	300,000	
65	ROTC 김 성 주	2014	300,000	
66	ROTC 이 시 현	2014	300,000	
67	최 우 범	2014~2018	1,500,000	
총 금액			Rp34,300,000	\$200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I HANA BANK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Think the Unthinkable!"

'1Cm'의 차이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서 남다름!!

INNOMATE Interior professional company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둥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담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NI)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챔피언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보시겠습니다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망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람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인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예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리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우궁화슈퍼	722 2214
우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너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회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기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보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니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보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합지박	739 6958
항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리컨설팅(리보찌까람)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	-----------------------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0821 1424 5055
강남하숙	725 3360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유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이트스쿨(리보카라외피)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김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아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0816-873-176
HP.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